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4년 4월 5일 금요일
etoday.co.kr

제3356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KB증권
BUY KOREA BUY BOND
채권 투자는 KB증권
*투자 전 설명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가격변동>,<환율변동>,<신용등급하락>등에 따른 원금손실(일부 또는 전액)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발행사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AAA/AA·A·BBB 각 +,0,-순으로 투자적격등급 구분

코스피(4일) 2742.00(+35.03P) | 코스닥 882.90(+2.94P)
환율(달러당 원화) 1347.10(-1.8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3.338%(-0.003%P)

삼성·SK, HBM 생산 확대 사활 12

제4인터넷은행 '4파전'… 관건은 자본금 16

기술금융 16.6조 공급… "中企 혁신·사업화 뒷받침"

정부 "민간 주도 활성화"

올해 3.4조… CVC 펀드 2.4조

기술혁신펀드 7개산업 집중투자

'첨단민군협력 펀드'는 처음 조성

초저금리 융자형 R&D지원 신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8년까지 16조6000억 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올해 공급 규모는 3조4000억 원으로 민관 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2조4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되고, 400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혁신펀드가 만들어진다. 방산 분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민군협력 펀드'도 처음으로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벤처투자사,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2조4000억 원 규모로 민간 주축의 CVC 펀드를 조성해 혁신형 창업 기업에 투자한다.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가 공동으로 운용하는 CVC 펀드는 민간 2조3000억 원, 산업기술혁신펀드 1000억 원으로 조성된다.

기술금융 2028년까지 16.6조원 공급

- **민관 합동 기업형 벤처캐피털 2.4조원 조성**
  →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
- **산업기술혁신펀드 4000억원 조성**
  → 방산, 인공지능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 등 7개 첨단산업 육성
- **초저금리 융자형 R&D 5400억원 신설**
  → 중소·중견기업 기술 사업화 지원

※ 초저금리: 연 0.5~1.84%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해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 등 7개 첨단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첨단 민군협력 펀드를 36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방산 분야 혁신 기업 육성을 도모한다. 첨단민군협력 펀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방산 3사가 추가 출자한다.

첨단 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 융자형 연구개발(R&D) 지원 사업도 54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13개 취급 은행을 통해 기업별로 20억 원 안팎까지 0.5~1.84%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이 이뤄지고,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최대 5.5%포인트까지 보전해주는 이차보전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총 3조4000억 원의 기술금융이 중소·중견 기업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16조6000억 원의 기술금융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방산업계, 벤처캐피털, 국내 CVC, 금융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펀드 공동 출자자로 참여해 위축된 벤처투자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尹, 전공의 대표 '2시간 대화'
"의대증원, 전공의 의견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면서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이날 대전협 회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금일 윤 대통령과 만난다. 대전협 비대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만남 배경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 사태는 대통령 의지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총선 전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 결정은 전체 투표로 진행하겠다"며 앞서 대전협이 요구한 사안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 "박단 대표 만나"
尹, 처우·근무여건 등 경청
대전협, 기존 요구안 고수
'밀실 만남' 비판 목소리도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50일 가까이 이어진 집단사직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받았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이어진 대화에도 뚜렷한 돌파구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극한 대립을 이어오던 양측이 일단 만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전공의들 내부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은 부담이다. 벌써부터 '밀실 만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전공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대타협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오늘·내일 사전투표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 모의시험 현장을 방문해 모의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6·8면 조현호 기자 hyunho@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알리·테무 조사 착수

국민 30% 사용… 악용 소지 있어
정부 "질문지 보내 유출 여부 확인"

정부가 초저가 정책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의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중국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본지 2024년 4월 3일자 1면 "'문제는 이커머스 아냐'… 국가안보 터는 中플랫폼' 기사 참조) ▶관련기사 3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 식당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테무, 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은 데다,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며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 이커머스의 종속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전체 국민의 30%(알리, 테무 이용자)에 육박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제2, 3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자국 플랫폼이 보유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국외 서버에 보관하는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보위는 "(중국 법률과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현재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에 개보위 차원에서 질문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답을 받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 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와 테무의 월간활성이용자 수(MAU)는 각각 694만 명, 636만 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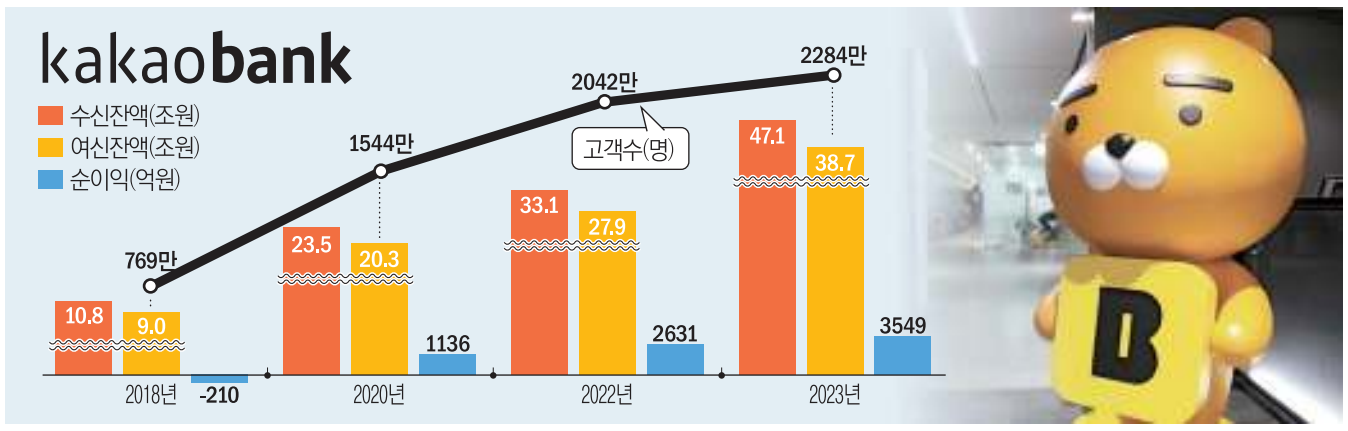
김나리 기자 nari34@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인뱅 톱티어 '카뱅'… 포용금융 실천하며 시중은행 맹추격

❹ '1등 금융플랫폼' 카카오뱅크

국민메신저 카톡 기반으로 성장
출범 3년 만에 인뱅 첫 흑자전환
전세대 아우르는 상품으로 대박
대출 비교하기 플랫폼 영향력↑



명실상부한 넘버원 금융플랫폼. 카카오뱅크를 일컫는 말이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 국민 필수 앱 카카오톡의 효과는 컸다. 탄탄한 20·30대 이용자를 주축으로 한 모바일뱅킹 일상화로 40~60대 유입을 이끌어 전 연령대로 고객군을 넓히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후 3년 만인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후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엄친아'로 불렸다. 순이익은 이미 대다수 지방은행을 넘어섰다. 지난해 지방은행 1등인 BNK부산은행과의 순익 격차도 200억 원으로 좁혔다. 시중은행이 더 낫다는 편견도 깼다. 2017년 3월 카카오뱅크 출범을 위해 파견된 KB금융그룹 직원 15명이 복귀를 거절하고 잔류를 선택한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일화다.

4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객 수는 22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42만 명 증가했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를 합한 가입자 수보다 많은 압도적인 수치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759만 명에 달한다. 당기순이익은 3549억 원으로 전년보다 34.9% 늘었다.

카카오뱅크의 성장은 뱅킹 비즈니스 혁신이 이끌었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100% 모바일 기반의 혁신적인 이용자경험(UX), 유저 중심의 상품 및 혜택,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효용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카카오뱅크는 26주적금, 모임통장 등 출시하는 상품마다 흥행에 성공했다. 기존의 수신상품을 고객 니즈에 맞게 출시하며 금융혁신을 이뤄낸 결과다. 2018년 6월 출시한 26주적금은 6개월 만에 100만 계좌를 넘었고,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누적 개설 2000만 좌를 돌파했다. 2018년 12월 출시한 모임통장 역시 올해 1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는 복잡한 여신 상품도 편리하게 제공하면서 전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국내은행 최초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100% 비대면으로 구현했다. 2022년 2월에는 전 과정을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현한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에서 압도적 1위는 플랫폼 영향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됐다.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플랫폼 플레이어로서 사업영역을 확장했다. 지난해 신용대출 트래픽이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1200만 건에 근접하는 등 대출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미성년자 고객을 위한 카카오뱅크 미니(mini)는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가입자수 200만 명, 분기별 결제액은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의 성장은 포용금융과 함께 이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평소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포용과 혁신을 통해 금융생활 필수앱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30%를 돌파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목표를 달성했다. 작년 말 기준 30.4%이며, 잔액은 약 4조3000억 원이다.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타지방 고객들의 금리가 낮아지는 등 포용금융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지방 고객 중 대환대출을 통해 가장 크게 금리를 낮춘 고객은 2.415%포인트(p)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다. 연간으로 약 480만 원의 이자를 아낀 셈이다. 지난달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청소년·노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상품 아닌 고객중심… 자금줄 마른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인터뷰

이 병 수 카뱅 개인사업자캠프 SO

사진제공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은 '상품'에 집중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고객'을 바라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금융권에서 포용금융을 선도하고 있는 곳은 카카오뱅크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을 달성했다.

최근 경기 성남시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만난 이병수〈사진〉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캠프 서비스오너(SO)는 "고객 중심으로 생각했던 마음이 인터넷은행 선도 업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금융 경험을 제공해 뱅킹 프로세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개인사업자 뱅킹과 보증서대출도 경쟁사들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사업자 전용 풀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중심의 접근으로 볼 때 오히려 느린 게 아닌 가장 빠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과 보증서대출 출시 후 고객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개인사업자 고객 수는 2022년 11월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13만 명을 돌파했고, 작년 말 기준 70만 명으로 5배 이상이 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1조 원으로, 전년 말(1000억 원)보다 10배 급증했다.

이 SO의 목표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청소년·노인 등 금융취약계층도 지원할 예정이다.

타행과 비교해 카카오뱅크만이 갖는 가장 큰 차별점을 묻자 이 SO는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와 문화가 강점"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혁신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카카오뱅크를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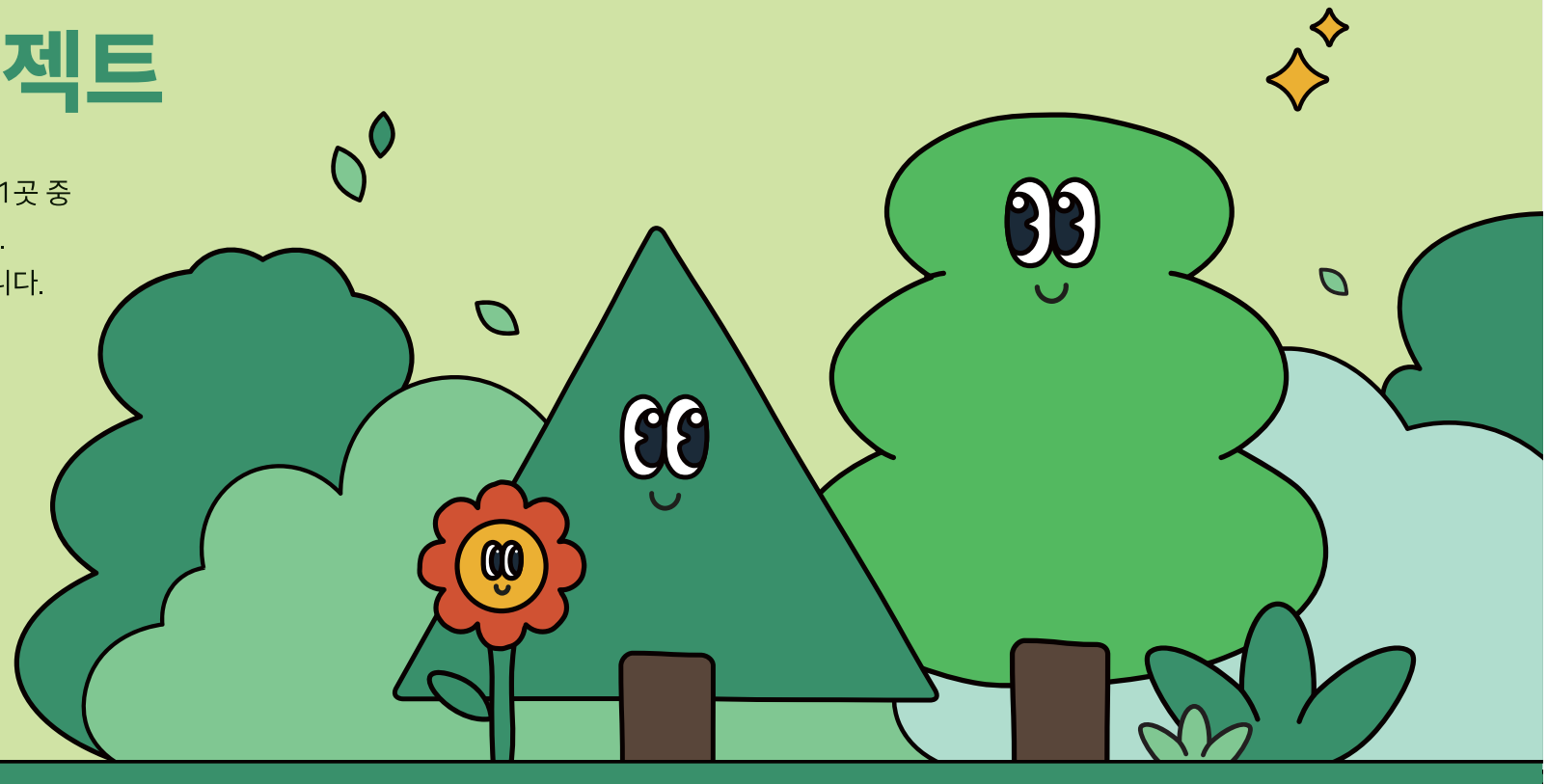
그는 끝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한 모바일 금융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장도 함께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jsw@

THE HYUNDAI × 생명의숲 FOREST FOR LIFE

현대백화점과 함께하는
나무 기부 프로젝트

월드컵공원, 용산가족공원 등 서울 도시 정원 11곳 중
내가 원하는 공원과 나무를 골라 기부해 보세요.
기부하신 금액만큼 현대백화점이 함께 후원합니다.



지금 기부하기

Green Friends
'내 나무 갖기'
기부 프로젝트
— 서울마이트리 —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H몰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 이지웰 | 지누스 | 현대드림투어 | 현대어린이책미술관

"中기업 '국내법 준수' 환경 조성·韓플랫폼 육성책 나와야"

⓭ 전문가 제언

'알·테·쉬' 면밀 감시… 집중단속
민관합동으로 '디지털 주권' 대응
배송·AS 등 문제 해결도 급선무

박성호 회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연승 교수
단국대 경영학부

최준선 명예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린 교수
한양대 경영학부

최근 C-커머스(차이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이 초저가 물량 공세로 국내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국내 산업계와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내법을 준수하는 K-커머스와 달리 C-커머스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국내 플랫폼에 대한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K-커머스와 C-커머스가 공정 경쟁할 수 있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부가 해외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정부에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커머스) 실태조사는 대규모 조사이기 때문에 인력이 매우 많이 투입되는데, 사실상 국내 기업에만 자료 제출 등 부담이 가게 된다"면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샅샅이 보고 있지만,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는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커머스는 국내 기업과 달리 공시 의무가 없어 정작 국내 기업에만 자료 제출, 조사 등 압박이 가해질 거란 우려다. 그는 "정부는 알리, 테무, 쉬인 등 세 기업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과당경쟁이나 부당행위, 소비자피해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플랫폼'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글로벌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미국이나 중국 중심으로 발전해 있고, 이들의 인공지능(AI) 기술도 바탕이 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고 AI 역량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토종 플랫폼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만큼, 정부가 규제책만 마련할 게 아니라 지원책에 대해 고민해 국내 플랫폼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알리, 테무의 공습은 비단 커머스의 문제뿐만이 아닌 경제안보의 문제인 만큼 민관의 합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인터넷 기업들은 영업범위가 제한돼 있지 않아 알리와 테무가 국내에 전자상거래로 들어왔지만, 서비스를 무한 늘릴 수 있다"면서 "이들은 높은 AI 수준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나라 플랫폼의 서비스 영역을 넘볼 수 있어 디지털 주권과도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국내 플랫폼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규제 자체를 보류해야 한다"며 "국내 플랫폼들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등을 적극 개척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단, 현재는 정부의 규제 압박에 기업들이 생존을 고민하게 되기에 지금은 민관이 합동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상린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C-커머스와 K-커머스의 품질 및 서비스 차이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알리, 테무가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건 사실이나 품질과 고객 서비스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알리, 테무 등이 품질과 고객서비스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은 알리, 테무 등과 가격면이 아닌 이들의 취약점인 배송, 고객 불만을 해결하는 AS 문제 등을 강화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자율규제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맞을수도"

인터뷰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미 시행
최소규제 원칙으로 집행 실효성 '업'
국내 역차별 없애야 기업 경쟁력↑

장준영 변호사가 3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에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한 명분 강화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특정 산업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율규제와 최소규제 원칙하에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법의 집행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잘나가니까 규제를 해야겠다',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성장을 막아야겠다' 이런 발상은 위험할 수 있다"며 "규제는 학습효과가 커 다른 영역에서 국내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전파법·방송법·통신법 등 각종 제도를 담당했다. 쿠팡에서는 정보보호법무책임자(CPC)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지낸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다.

그는 C-커머스의 확산으로 인한 가품 판매·과대광고·개인정보 침해 등의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 틀에서 이들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하도록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과거에는 정부가 고려할 만큼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알리·테무는 통계적으로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점유율도 높은 만큼 과징금·과태료 감경 혜택이 있는 자율규제 참여를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이는 기업들이 국내법과 사업자의 책임을 잘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쿠팡·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202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했다. 그 결과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커머스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행 결과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장 변호사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독창적인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 인터넷 비즈니스는 국제 규범에 맞춰가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 규범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규제가 한국에 도입된다면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 등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신뢰성과 더불어 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이스라엘 총리〉

'오폭'에 궁지 몰린 네타냐후 … 중동 확전 '뇌관'되나

가자지구 구호車 폭격 7명 사망
이스라엘 오폭, 서방국 맹비난
내부선 총리사임·조기총선 촉구
네타냐후 "몇 주 내 하마스 축출"
강공 요구에 美마저 휴전 만지작
중동전쟁 확산 우려에 사면초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전쟁한 지 7일(현지시간)로 6개월이 된다. 여전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축출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관심은 하마스가 도망쳐 숨은 가자지구 라파에 쏠린다. 이스라엘은 라파 내 군사작전을 계획했지만, 서방의 반대에 직면했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던 미국마저 최근 '즉각 휴전'을 내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휴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져 통과시키는 등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박멸이라는 강공을 고수하면서 이제 전쟁은 하마스와 네타냐후 총리의 생존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의원들 앞에서 라파 작전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했다. 그는 "이스라엘은 하마스 3, 4인자를 포함해 많은 고위 지도자들을 제거했다"며 "이제 우린 1, 2인자를 제거할 것이고 승리까지 몇 주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전쟁을 마무리하기까지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지지해 달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팎에선 갈수록 네타냐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예루살렘에서만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 인질 석방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다음 선거는 2026년으로 예정됐지만, 시위대는 정권 교체만이 휴전의 지름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시위는 이번 주에도 매일 열리고 있으며, 일부 폭동으로 확산하는 등 긴장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묘한 기류가 생성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의 리더십 아래 이스라엘이 전 세계, 심지어 미국에서도 버림받는 존재가 될까 걱정된다"며 조기 총선에 힘을 보탰다.

네타냐후 총리는 조기 총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거는 이스라엘을 마비시킬 것이고 하마스가 가장 먼저 축하할 일"이라며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전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모르쇠로 버티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 특히 가자지구 구호활동가 7명을 사망하게 한 1일 오폭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사망자들은 미국·캐나다 이중국적, 영국, 호주, 폴란드, 팔레스타인 국적자로 알려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에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이라며 자국군을 애써 두둔하려다 논란을 키웠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도 보인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회담이 재개했지만, 곧바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폭격을 가하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영사관 폭격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장성 두 명과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 1명 등 총 12명이 숨졌으며, 이란은 즉각 보복을 천명했다. 이란마저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면 5차 중동전쟁은 불가피해진다. 네타냐후 총리를 향한 사임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

과거 중동에서 근무했던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고위 관리인 랄프 고프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무모했다"며 "이는 이란과 그들 대리인의 확전을 초래할 뿐이고 중동에 주둔하는 미군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나 스트로울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국장은 "이번 공습은 이미 불안정한 중동을 전면전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팔 전쟁 6개월 일지

※ 출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이스라엘 대대적 공습
	8일	네타냐후 총리 "전쟁 중" 선언. 이스라엘 가자지구 보복 공습
	28일	이스라엘, 지상전 돌입. 네타냐후 "전쟁 2단계 진입"
11월	2일	이스라엘 "가자시티 포위 완료" 미국, 블링컨 장관 급파
	7일	이스라엘 "가자시티 포위" 시가전 개시 공식화
	15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 급습
	22일	이스라엘·하마스, 나흘간 일시 휴전 및 인질 석방 합의
12월	1일	이스라엘군, 휴전 만료 직후 가자지구서 전투 재개
	3일	후티 반군, 홍해서 이스라엘 선박 2척 공격
	15일	이스라엘 오인 사격으로 하마스 억류 인질 3명 사망
	18일	미국, 홍해상의 후티 반군 공격 대응 위해 다국적 안보 연합군 조직

2024 년

1월	2일	이스라엘, 가자지구서 병력 수천명 철수 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정치국 2인자 암살
	3일	이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4주기 추모식서 폭탄 테러
	15일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북부서 고강도 공격 종료 선언 이란 혁명수비대(IRGC), 이라크 내 이스라엘 모사드 첩보 본부 공격
	28일	요르단 주단 미군 부대 드론 공격 받아 미군 3명 사망
2월	11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단 라파 공습 시작
3월	2일	미국, 가자지구에 식량 3만8000명분 공중 투하
	25일	유엔 안보리, 즉각적인 휴전 및 인질 석방 요구 결의안 채택
	31일	이스라엘서 '총리 퇴진·인질 협상 합의' 요구 반정부 시위. 10만명 운집
4월	1일	이스라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 사망 이스라엘군 오폭으로 국제구호단체 WCK 활동가 7명 사망

피 묻은 땅에 영광은 없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양측의 경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전쟁 발발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급감했다. 애널리스트 평균 전망치 10.5% 감소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다. 민간 지출이 36% 급감했고, 수출은 18.3% 줄었다. 고정자산, 특히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67.8% 쪼그라들었다.

기업계는 징집과 팔레스타인 근로자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에 시달렸다. 이스라엘 GDP 18%를 차지하는 기술 분야도 예비군 동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가 2006년 2차 레바논 전쟁 당시 기록된 피해보다 6배 더 크다"고 추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월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2'로 강등했다.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마스와의 충돌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전쟁 비용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급증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 재정적자는 2022년 대비 약 3배 규모로 불어났다.

전쟁이 가자지구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훨씬 더 파괴적이었다. 세계은행(WB)은 가자지구 경제가 작년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80% 넘게 위축됐으며, 현지 인프라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11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재앙적인 굶주림에 직면했다. 피란민이 몰린 라파 지역에서는 화장실 1개당 850명, 샤워시설 1곳당 3400명이 써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WB는 "가자 지역의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됐다"며 "거의 모든 주민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빈곤 속에 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불씨는 홍해까지 옮겨붙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작년 11월부터 글로벌 교역의 핵심 통로인 홍해를 사실상 막아세우면서 하마스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이들의 위협으로 전 세계 해운사들은 아프리카 희망봉 루트로 우회해야 했고, 이는 세계 물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운송 지연에 따른 물류 대란과 운임비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박을 키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전쟁 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9·11 사태와 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었던 미국의 회복력을 염두에 뒀다.

전략 컨설팅회사 키엘레멘츠그룹의 데이비드 자이킨 최고경영자(CEO)는 "이스라엘 경제는 테러 공격 이후 미국의 9·11 테러와 유사한 초기 충격에 직면했지만, 역사적 증거를 비롯한 모든 징후는 빠른 회복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장기적인 위기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의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팔 경제 '제로섬 전쟁'

LG엔솔, 美 애리조나 공장 착공… 원통형 46시리즈 생산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총 7조2000억 원을 투자하는 원통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생산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지역에 투자를 지속해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3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릭에서 신규 원통형 및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 건설 현황 관련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착공을 알렸다.

이 공장은 향후 전 세계 시장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지역에 건설되는 두 번째 단독 공장이다. 원통형, ESS의 '첫 전용 생산 공장'이기도 하다.

애리조나 공장은 원통형 배터리 36기가와트시(GWh), ESS LFP 배터리 17GWh 규모로 각각 건설될 예정이다. 총 생산 능력은 53GWh에 달한다. 2026년 가동이 목표다.

나희관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법인장(상무)은 "최근 공장 부지 정리를 마쳤으며 현재 순조롭게 철골 건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원통형 공장과 ESS LFP 공장은 2026년 각각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할 배터리는 전기차용 46시리즈(지름 46㎜)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하반기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글로벌 주요 배터리 제조사 중 처음으로 원통형 4680 배터리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창 에너지플랜트 양산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고, 이후 기술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차질 없이 원활한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성 LG에너지솔루션 소형전지사업부장(전무)은 "애리조나 공장은 단순히 LG에너지솔루션의 생산 공장을 넘어 북미향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대표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친환경 EV(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고객사들과 함께 애리조나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애리조나주 배터리 공장 조감도.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ESS 전용 배터리 공장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파우치형 LFP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ESS 시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 관세 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번 투자는 애리조나주를 넘어 미국 전역이 클린에너지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애리조나주에서는 주민들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尹 "민생법안, 국회 통과에 최선… 철도 지하화 속도"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

"예산으로 가능할 땐 즉시 집행"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2억 완화
국토부 철도지하화 협의체 출범

부총리, 증시 밸류업 해외투자자 간담회

최상목(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투자공사(KIC)에서 열린 '밸류업 프로그램 해외투자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꼽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새롭게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가 '결혼 메리트'로 갈 수 있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만한 것은 아주 폐지하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선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사용자와의 중재 등 이들 근로자를 종합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라고 고용부에 지시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도 상관하지 않겠나.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이날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인접부지 개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협의체는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지하화 기술분과에서는 지역별 최적의 지하화 공법을 논의하고, 도시개발·금융분과는 상부 부지 개발 방향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지역협력분과도 운영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국민들 '22대 국회'에 바라는 건 민생·저출생·경제재생 '3생정책'

대한상의, 1.2만명 선호 공약 설문
예금자 보호 강화·주4일제 등 인기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 국민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만2000명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공약 월드컵' 설문을 진행한 결과 새 국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로 '민생'(33.6%)이 꼽혔다고 4일 밝혔다. '저출생'(22.7%) 해결과 '경제재생'(기업 지원 12.3%, 자영업 지원 12.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3저(저성장·저출생·저소비)가 우리 경제에 복합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운 상황에서 서민 살림부터 기업 경영, 잠재성장률까지 새 국회가 경제 전반을 살펴주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이번 설문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사회 분야 공약을 7개 부문으로 나눈 후 여야 각 6000명을 대상으로 부문별 선호 공약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상위 5개 인기 공약 중에서는 민생분야 공약이 4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8.5%) △청년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지원 요건 확대(3.2%) △채용 갑질 근절(3.1%)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및 활용 확대(2.5%)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2.4%) 등이 차례로 꼽혔다.

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해결 공약 2개도 인기 공약으로 꼽혔다.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씩 국가가 대출해주되 출산 아동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결혼 출산 지원금 지급'(3.8%) 공약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바우처'(3.5%) 공약이 3위에 올랐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3.1%)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3.0%) 공약이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강명수 대한상의 회원본부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22대 국회가 이번 조사로 드러난 민의를 참고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가 돼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터줏대감 빠진 최대 승부처 조정훈 이지은 ‘새 얼굴’ 앞세워 진검승부

11 마포갑

배틀필드 410

4일 서울 마포갑 선거구에 속한 용강동주민센터 인근 사거리에서 조정훈(왼쪽사진) 국민의힘 후보와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기호 1번 이지은입니다.”

“기호 2번 조정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2대 총선을 코앞에 둔 4일 오전 서울 마포갑에 속한 용강동주민센터 인근 사거리. 이지은(더불어민주당)·조정훈(국민의힘) 후보가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출근길 인사에 나선 진풍경이 펼쳐졌다. 이곳은 마포자이1차·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래미안마포리버웰·마포태영 등 4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소위 ‘출근길 유세 꿀스팟’으로 통한다.

유세차에 오른 이 후보는 앰프 볼륨을 최소화한 로고송에 맞춘 율동과 함께 ‘광역 인사’를, 조 후보는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구민들에게 도보 인사를 건넸다. 조 후보는 본지에 “만나는 분마다 마포 개발을 제대로 해달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빨리 벌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계속 열심히 인사드리며 선거에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사 도중 이 후보 유세차의 주차 위치가

노웅래 父子 9선, 진보 강세였지만
서울시장 재보선·대선은 국힘 승리
‘한강벨트’ 속 핵심 격전지로 꼽혀

거슬린 한 구민이 이 후보에게 다가가 항의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 후보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구민을 다독인 뒤 오전 유동인구가 많은 마포아트센터 인근으로 옮겨 유세를 이어갔다. 두 후보는 오후부터 공덕동을 중심으로 바닥 표심을 훑었다.

두 후보는 여야의 ‘고스펙 영입인사’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시대전환을 이끌던 비례대표 초선의원 조 후보를 합당 형식으로 영입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시위를 벌인 총경 출신 이 후보를 11호 인재로 영입했다. 공인회계사인 조 후보는 연세대와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대학원을 거쳐 세계은행에서 15년간 근무한 경제전문가다. 이 후보는 경찰대 졸업 후 24년간 경찰에 몸담으며 서울대·케임브리지대 대학원, 한양대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엘리트 경찰로 알려졌다.

이날 경의선 숲길과 염리동, 용강동 일대에서 만난 마포갑 주민들의 생각은 다

趙, 공인회계사·세계은행 근무 이력
총경 출신 李, ‘경찰국 반대’에 앞장
‘스포츠센터’ ‘K팝 공연장’ 공약 대결

양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주민들은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염리동에 산다는 박모(80대·남) 씨는 “무조건 민주당, 이지은”이라며 “정권이 엉터리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번에 꼼짝 못하게 혼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의선 숲길을 거닐던 40대 이모 씨는 “대통령이 꼴 보기 싫어 국민의힘은 안 찍는다. 민주당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에 연루돼 컷오프(공천 배제)된 노웅래 의원이 부친과 함께 도합 9선을 지낸 지역인 만큼 피로감을 토로하는 주민도 있었다. 유년기부터 마포에서 살았다는 70대 남성은 “민주당이 너무 오래 해 먹었다. 그만할 때도 됐다”며 “요즘 하는 걸 보면 죄도 짓고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염리동에 산다는 50대 정모 씨는 “민주당은 안 된다”며 “사사건건 정권을 말아먹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요 현안은 재개발·교육 등이다. 두 후보는 △강변북로 지하화 조기 착공 △지역 노후아파트 재건축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등의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마포 유수지에 조 후보는 ‘한강뷰 스포츠센터’, 이 후보는 ‘K-POP 복합공연장’을 각각 짓겠다고 공약했다. 핵심 교육 공약으로 이 후보는 △주변대학·고교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원스톱 교육 특구 조성 등을, 조 후보는 △맞춤형 교육 특례 발굴을 위한 서울 최초 교육발전특구 조성 등을 내걸었다.

글·사진 정호영 기자 moonrise@

〈득표율 격차〉

254개 선거구 중 50여곳… ‘5%p 내’ 박빙지역서 승패 갈린다

총선리딩방

與, 수도권 우세·경합우세 13곳뿐
기대 걸었던 동작을·성남분당갑
초박빙 양상…PK도 경합지 늘어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다.

여야는 전국 254곳 중 득표율 5%포인트(p) 내 당락이 갈릴 경합지를 50여 곳으로 보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4일 기준 양당 자체 분석과 기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전국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유리한 흐름으로 관측된다. 전체 지역구 절반에 달하는 서울(48)·경기(60)·인천(14) 등 122석 수도권은 핵심 승부처다. 직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103석(국민의힘 16석)을 휩쓸었다. 현재 국민의힘은 수도권 우세·경합 우세지를 4년 전보다 적은 13곳으로 분석했는데, 절반이 텃밭인 서울 강남 3구(7곳·송파병 제외)에 몰렸을 정도로 위기감이 짙다.

국민의힘이 기대를 걸었던 ‘한강벨트’ 서울 동작을, 경기 성남분당갑도 초박빙 양상이다. 3일 발표된 조원씨앤아이 동작을 여론조사(이데일리 의뢰·1~2일 조사·동작을 503명·무선ARS) 결과, 류삼영 민주당 후보 48.5%,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 47.5%, 동일 기관의 분당갑 조사(분당갑 504명)에선 이광재 민주당 후보 50.7%,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43.0%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명룡대전’으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을 조사(계양을 506명)에선 이재명 후보 53.5%,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 41.5%의 지지를 받았다.

40석이 걸린 PK(부산·울산·경남) 민심도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부산 15석 등 PK 33석(민주 7석)을 확보했는데, 민주당이 점유한 ‘낙동강벨트’의 북갑·사하갑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접전 혹은 열세 기류가 감지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부산일보·부산MBC 의뢰로 1~2일 북갑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면접 조사한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 52.9%,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 41.3%였다. 부산 연제는 KSOI 조사(1~2일 조사·연제 500명)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노정현 진보당 후보 56.7%, 김희정 국민의힘 후보 37.5%였다. 민주당은 부산진갑·북을·기장·강서 등 7곳을 경합 우세, 국민의힘은 북갑·사하갑·수영·연제를 뺀 14곳을 우세·경합 우세로 보고 있다.

3일 발표된 입소스 조사(SBS 의뢰·3월 31일~4월 2일 조사·양산을 502명·무선면접) 결과 ‘캐스팅보트’ 충청권(28석)은 국민의힘이 9곳, 민주당이 11곳 우세로 전망됐다. 강원(8석)은 국민의힘이 춘천철원화천양구갑·원주을을 뺀 6곳을 우세·경합 우세로 분류했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TK(대구·경북) 25석 중 24석 우세, 민주당도 텃밭 호남(28석)·제주(3석) 석권을 전망했다. 경북 경산에선 최경환 무소속 후보가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선전하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모든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정호영 기자 moonrise@

금감원·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위법 맞다… 수사기관 통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확인
제출서류 대부분 허위로 판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감독당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회는 앞서 1일부터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금감원-중앙회 간 공동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과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사반 확인 결과, 양 후보가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유용,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후보의 자녀는 이를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부인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에 이체했다.

검사 과정에서 허위증빙을 제출한 건도 밝혀졌다. 양 후보의 자녀가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 명세표 7건이 모두 허위 또는 허위 의심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가 1개 업체 1건으로 드러났다.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하거나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검사에서 파악됐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 국장은 “수성새마을금고가 사업성, 사업 이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장등록증만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 본부장은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의 임직원과 차주, 모집인 등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찰칵 안돼요” 투표지 찍으면 벌금 400만원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인증샷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릴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 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등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 기간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대응할 예정이다.

정대한 기자 vishalist@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암보험은 더 강해야 한다

점점 더 강해지는 암보험으로
고객의 든든한 안심이 되겠습니다

삼성 다(多)모은 건강보험 S2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암보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4-01837호(2024.3.29 ~ 2025.3.28)

韓 "우리가 포기하면 범죄자들 이겨" 사전투표 참여 호소

서울·경기지역 격전지 집중 유세
"범죄자 이기면 나라 혼돈 빠질 것"
영업정지 처분 유예·감경 제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전날인 4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격전지를 돌며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한 위원장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곧바로 도봉구 쌍문역에서 유세차에 올라 "투표장에 나가 달라. 사전투표를 통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전국 방방에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금까지 총선 결과를 맞힌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었다"면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투표해 주면 우리가 이기고, 여러분이 포기하고 나가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중랑 유세에서도 한 위원장은 범야권이 200석을 달성한 상황을 가정하며 "극도의 혼란과 혼돈을 상상해 달라"며 거듭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동대문 유세에서는 "사전투표는 일종의 기세 싸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저도 내일(5일)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이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 하겠다"고 밝혔다. '이화여대생 미군 장교 성 상납'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를 겨냥한 행보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도 추가로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 업주의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고용인원·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송파구 석촌동에서 박정훈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사업자들이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중한 제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최근 논란을 빚은 일부 야당 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경기 수원정), '편법 대출'로 비판받은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공천을 유지한 데 대해 "이런 오만을 그대로 두고 볼 건가"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한병도라는 민주당 선거관련자가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판세에 별다른 영향이 없더라. 그러니까 김준혁이든 양문석이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남편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점을 거론하며 "투표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하자. 우린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다고"라고 말했다.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도 "부인 정경심 씨는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딸 조민 씨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자기가 챙겼다"며 "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이 좀 잊었다고 나와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자식들에게 조국, 이재명처럼 남을 속이며 살라고 가르친 건가.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지난대선〉

李 "0.73%p차에 나라 운명 갈렸다… 박빙지역서 지면 여당이 과반"

부산·울산·대구 등 험지 집중유세
"與 읍소작전 속지말라" 재차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부산과 울산, 대구 등 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중·영도 박영미 후보 지역구를 시작으로 이날 하루만 부산 다섯 곳, 울산 네 곳을 방문한 뒤 대구에서 대구 지역 후보들과 함께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가 하루 종일 머무르며 영남 지역에 공을 들인 것은 당이 노리는 151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곳의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년 전 코로나 정국에서 치러진 총선 때와 같은 수준의 수도권 싹쓸이가 쉽지 않다는 경계론이 당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험지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총 의석수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부울경 후보 지원에 나서는 것도 험지에서의 승리가 그만큼 민주당에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 입법까지 좌지우지해 온갖 법을 개악할 것"이라며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을 막아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25 전쟁 때도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킨 것은 낙동강 전선 이하 부산이었다"며 "민주주의, 평화, 민생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으니 깨어 있는 부산 시민께서 이번에도 꼭 나라를 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5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를 비롯해 10일 본 투표일에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나와 투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판세가 박빙 지역인 곳이 60여 곳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울산 남구를 방문, 박성진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치고 차에 오르며 지지자를 향해 엄지를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부산을 포함해 전국 박빙 지역에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투표하면 이기고 포기하면 진다. 박빙 지역에서 지면 과반수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영도구 박영미 후보 지지 유세에서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의 한강 벨트, 지금 만만치가 않다"며 "혹시 일부 언론에 속아서 승부라고 하는 것이, 선거의 승패가 수십 퍼센트의 격차로, 수만수천 표씩의 표 차로 결판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단 0.73%포인트(p)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이라며 지난 대선 결과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앞으로 온갖 해괴한 여론조사가 나올 거다. '죽겠다, 나 이거 망했다', 무슨 오늘 아침에 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큰일 났다, 박빙 지역에서 지면 우리 100석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 공갈 아닌 공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소득 4400만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기재부 '결혼 페널티' 해소 나서
20.7만→25.7만명으로 혜택↑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248만명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가구도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단독가구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단독가구과 비교해 맞벌이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인원도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된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이달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248만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인 다음 달 10일보다 일주일 빠른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고금리에 허리띠 졸라매는 가계… 운용·여윳돈 4년 만에 최저

한은 '자금순환 통계'
작년 순자금운용액 전년比 51조↓
금융기관 예치금·채권 규모 축소
자금조달·운용 모두 쪼그라들어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늘고 경기 부진도 계속되면서 가계 여윳돈이 50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4일 공개한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자금 운용액은 158조2000억원으로 2022년(209조원) 대비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는 순자금 운용액이 플러스(+·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마이너스(-·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정진우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작년 가계의 여윳돈이 줄어든 데 대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자 비용이 늘었고,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인 소득 증가율도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전체 자금 운용 규모는 194조7000억원으로, 1년 전(283조5000억원)보다 약 88조8000억원 줄어 2019년(181조6000억원) 이후 가장 적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가계의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전년 31조7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돌아섰다. 2013년(-7조원) 이후 최저 수준이다.

운용액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기간 중 금융자산 처분액이 취득액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가계가 위험자산을 축소하고, 우량주에 집중하면서 절대적인 거래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금융기관 예치금(147조원→128조8000억원), 보험 및 연금준비금(65조1000억원→41조4000억원), 채권(34조5000억원→25조5000억원)도 운용액이 감소했다.

가계 비영리단체 순자금 운용
(단위: 조원)

	2021년	2022년	2023년
자금운용	367.6	283.5	194.7
금융기관 예치금	158.4	147.0	128.8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119.9	31.7	-4.9
자금조달	199.9	74.5	36.4
순자금 운용액★	167.8	209.0	158.2

★ 자금운용-자금조달 차액 ※ 출처: 한국은행

가계는 지난해 총 36조4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한은 통계 편제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년(74조5000억원)과 비교해 조달액이 38조1000억원이나 줄었다.

자금조달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차입(대출)은 66조1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비금융법인기업의 경우 작년 순조달 규모가 109조6000억원으로 전년(198조1000억원)보다 88조5000억원 축소됐다.

자금 조달 방법 가운데 금융기관 차입이 208조5000억원에서 63조6000억원으로 급감했고, 채권 발행도 55조3000억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일 대전장대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했다. 이날 한 장관이 아이들과 함께 친환경 교육 차량인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부

〈환경부 장관〉

'늘봄학교 일일교사' 한화진… "놀이·체험형 환경교육 개발"

대전장대초 1학년 학생들과 함께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서 환경체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변신해 친환경 생활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알린다.

한 장관은 4일 대전장대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참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함께 수소 트럭을 개조한 친환경 교육 차량인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에서 환경체험을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후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및 돌봄 과정을 제공하는 국가교육 서비스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도 늘봄학교 교사로 나서 우주와 로켓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읽어주고, 누리호 로켓 모형을 날리며 로켓의 추진 원리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활용해 수소로 대표되는 친환경 에너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우리 주변의 다양한 탈것을 비교해 알렸다. 이어 날씨와 봄꽃 이야기로 기후변화가 생물에 주는 영향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쓰레기 분리배출 등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방법을 주제로 하는 퀴즈를 통해 아이들의 적극적인 호응도 이끌었다.

이날 늘봄학교 수업에 활용된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각종 환경교육자료를 탑재한 이동교육차량으로 초·중·고등학교와 기관에 직접 찾아가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2004년 첫 선을 보인 이래 현재까지 20년간 교육 현장에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날 수업에 참여한 이동교육차량은 국내 처음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무공해 차량인 수소 트럭을 개조해 만들어졌으며, 앞으로 교보생명과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한 장관은 "늘봄학교를 위한 놀이·체험형 환경교육을 개발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개인이 기록한 건강 정보도 의료기관 간 조회·전송 가능

병원 데이터 민간활용 확대
복지부 '규제장벽 철폐방안' 논의
표준화 가이드라인·플랫폼 구축

개인이 기록한 건강정보도 의료기관 간 전송이 허용된다. 기업과 연구자의 병원 의료데이터 활용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규제장벽 철폐방안은 상시안건으로서, 1차 회의 이후 20개 과제가 발굴됐다. 혁신위는 이 중 현장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다.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도 활성화한다. 개인생성 데이터는 환자나 가족 구성원, 간병인 등이 생성·기록·수집한 데이터를 뜻한다.

복지부는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임상·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정보 관리·전송 공공 플랫폼이다. 앞으로는 환자가 다니던 병원을 옮길 때, 기존 병원의 진료·투약이력 등에 더해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새 병원에 전산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첨단재생 분야 임상연구와 '약사법'상 임상시험을 연계하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관리를 일원화한다. 또 유전자 검사기관 중 숙련도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 다음 연도 평가를 면제하며,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결과를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자문단 구성·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자문단은 규제혁신·산업육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디지털·바이오헬스, 전문인재 양성, 법제·인프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날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산·학·병·연 전문가 65명을 위촉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TSMC, 일시적 기우뚱… 설비 70% 이상 복구·주가 반등

대만 강진 피해 제한적

엔비디아칩 생산시설 80% 복구
반도체 공급망 큰 타격 없을 듯
아이폰 조립 폭스콘도 생산 재개

대만에서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TSMC는 성명에서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공장 설비의 70% 이상을 복구했다"며 "타이난에 있는 '팹18' 등 신설 공장의 복구율은 80%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포함한 중요 생산 설비에는 손상이 없다"면서도 "일부 시설에서 소수의 장비가 손상됐지만 완전한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팹18 공장은 애플과 엔비디아 등에 공급하는 첨단 반도체의 주요 생산 거점이다.

대만 타이난의 TSMC 공장 연합뉴스

전날 오전 7시 58분께 대만 동부 화롄 남동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TSMC의 주요 공장들이 있는 서부 각지에서도 규모 4~5의 지진이 감지됐다.

TSMC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며 생산시설의 90% 이상이 대만에 집중돼 있다. 이번 강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큰 피해가 보고되지 않으면서 업계도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들은 "일부 하이엔드 칩의 경우 진공 상태가 24시간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며 "대만 북부 산업 지역의 가동 중단은 일부 최첨단 반도체가 손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로 애플 아이폰을 조립하는 훙하이정밀(영문명 폭스콘)도 지진 후 설비 검사를 위해 생산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했지만, 이후 점진적으로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뉴욕증시에서 TSMC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주가는 3일(현지시간)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 반등해 전 거래일 대비 1.27% 상승으로 마감했다. 경쟁사 유나이티드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UMC) ADR는 0.49% 올랐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들은 "TSMC의 첨단 노드 프로세스에 대한 견고한 수요가 지진으로 인한 재정적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증시는 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휴장했다.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하루 새 급격히 늘었다.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4일 오후 1시 10분 기준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05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42명, 고립된 사람은 64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망자 9명은 모두 화롄시에서 나왔다. 관광명소 타이루거국가공원에서 4명, 쑤화 고속도로에서 1명, 다칭수이터널 휴게구역에서 2명, 광산 지역에서 1명, 건물 붕괴로 1명이 각각 사망했다.

한편 화롄현 허핑 광산에서 고립됐던 64명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다. 당국은 터널 등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 구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롄 지역은 대만 대표 관광도시 중 하나여서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등산을 즐기던 관광객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전아현 기자 cahyun@

푸바오 중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나서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4일 쓰촨성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의 격리·검역 구역에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판다로 짝을 찾기 위해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자이언트 판다 보호연구 협약'에 따라 떠나게 됐다. 한국에서의 인기가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도 푸바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와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푸바오를 돌본 사육사들과 한국인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표했다. 청두(중국)/신화연합뉴스

애플 '차세대 먹거리' 개인용 로봇 추진

산책용·탁상용 홈디바이스 연구
애플카 포기 이후 새 수익원 압박

'애플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개발에 나섰다가 결국 포기한 애플이 차세대 먹거리로 개인용 로봇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애플이 개인용 로봇 프로젝트 추진을 연구하는 팀을 여러 개 꾸린 상태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애플 엔지니어들은 이용자의 집 주변을 따라다닐 수 있는 이동식 로봇을 살피고 있으며, 로봇 공학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탁상용 홈 디바이스 역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작업은 애플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서와 인공지능(AI)·머신러닝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젝트는 비공개로 추진 중이며, 이제 시작 단계다. 제품이 최종적으로 출시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애플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받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2월 애플카 프로젝트를 폐기한 점과 연초 공개한 혼합현실(MR) 헤드셋인 비전프로가 주요 수익원이 되기까지 몇 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애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애플이 로봇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이미 몇 년 전 애플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탁상용 로봇 프로젝트가 거론됐다. 다만 당시 소비자의 니즈 여부와 제품 개발을 놓고 엇갈린 경영진의 의견 등으로 인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애플의 새로운 계획에도 시장 반응은 차가웠다. 소식이 전해진 뒤 애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로봇청소기 업체인 아이로봇이 수혜 기대감 속에 장중 17% 폭등했다. 아이로봇마저 종가 기준으로는 1%대 상승 마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에브리싱 金랠리… 사상 첫 2300달러 돌파

안전자산 수요 증가…올 11.5%↑
파월 의장, 금리인하 신중론 무색
전문가 "달러 약세든 강세든 상승"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300달러(약 310만 원)를 넘어섰다.

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의 중심인 6월물 금 가격은 전장보다 33.2달러(1.5%) 상승한 온스당 2315.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11.5% 뛰었고 최근 5거래일간 상승률은 4.3%에 달했다.

심지어 최근 금값은 과거와 달리 어떤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오르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미국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가 보도했다.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속 안전자산이나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회피) 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들의 매수세 확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금이 고공행진 하고 있다.

심지어 이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신중론을 피력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약화시켰는데도 금값이 오히려 올랐다. 파월 의장은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해 지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서기 전에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경제와 인플레이션 억제 진전을 고려하면 향후 데이터를 더 살필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뉴욕에 기반을 둔 독립 금속 트레이더인 타이 웡은 "금 시장의 전반적인 장밋빛 그림이 바뀌지 않았다"며 "파월 의장의 관례적인 신중한 접근방식은 강세론자들을 걱정하게 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전에 없던 이상한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브로커XM의 아킬레아스 게오골로풀로스 애널리스트는 "금은 계속해서 중력을 거스르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강세로 모든 시장 시나리오에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금값은 미국 달러화 가치 하락이든 상승이든 계속 올랐다"며 "이는 외환보유고를 다각화하려는 특정 국가의 강력한 매수 수요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금값 상승세가 과도하다며 경고음을 내는 목소리도 있다. 캐슬린 브룩스 브로커XTB 애널리스트는 "금 계약의 미결제약정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금값은 200일 단순이동평균보다 15%가량 높은 상태다. 이는 극단적인 수준이며,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구글 "AI 검색은 돈 내라"… 부분 유료화 검토

비싼 구축 비용에 광고 악화 염두

구글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기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구글은 AI 기반 검색 기능 옵션을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를 통해 과금하는 안을 타진 중이다. 엔지니어들은 AI 기반 검색 서비스 배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 중이며, 경영진은 아직 서비스 출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도입되면 구글이 전적으로 광고로 자금을 조달해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한 핵심 사업인 검색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향후 AI 접목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구글 검색사업이 무료에서 유료로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글 검색사업의 역대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FT는 강조했다.

구글은 지난해 검색과 관련 광고에서 1750억 달러(약 236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생성형 AI가 완벽한 답변을 제공해 사용자들이 기존 검색엔진의 링크 목록과 그 옆에 뜨는 광고주 웹사이트를 클릭할 필요가 없게 되면 구글 광고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기본 검색엔진에 생성형 AI를 접목하면 그만큼 더 많은 컴퓨터 리소스를 필요로 해서 비용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든다. 유료화를 통해 이런 비용 부담을 덜려는 것이다. 이진영 기자 mint@

SOL TRAVEL
Shinhan

"해외 갈 때 아직도 현금 환전해?"

환전 수수료 없고
현금 들고다니기 불안한데
왜안SOL?
써보면 왜 쓰는지 아는
SOL트래블 체크카드

[유의사항]
- 이 광고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한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신한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80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부탁 드립니다 - 전월실적 및 혜택 상세기준 등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참조 - 혜택 1. 환전 100% 우대, 재환전 50% 우대 2. 국내 편의점 5% 및 후불교통 1% 할인, 국별 특화 가맹점 5% 할인(일본, 베트남, 미국) 3. 외화계좌 특별금리(연 USD 2.0%, 유로 1.5%)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4-11050-1호(2024.03.12~2025.03.11) *신한카드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40312-Dpn-001호(2024.03.12~2025.03.11)

신한은행 | 신한카드

반도체 폭발적 수요에… 삼성·SK, HBM 생산확대 사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빅2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국내외 HBM 생산 라인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HBM은 경기 이천 팹에서만 생산해왔는데, 청주 팹에도 HBM 생산을 위해 라인을 증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SK하이닉스가 HBM 등 패키징 설비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전체 지출추정액(105억 달러) 가운데 10%에 달한다.

SK하이닉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2000 억 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와 연구개발(R&D)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2028년까지 공장을 짓고, 같은 해 하반

SK, 美에 HBM 생산공장 건설
청주 팹에도 생산라인 증설 등
패키징 설비 10억弗 투입 전망

삼성, HBM 출하 2.9배 확대
지난해 첨단 공정에 48.4兆
DS부문 증설·전환 투자 증가세

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향 메모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해외에서 HBM의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세대 HBM 제품은 고객 맞춤형 생산이 중요한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세대 HBM인 HBM3를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해왔다. 지난달부터는 5세대 제품인 HBM3E도 최초로 대량 양산 및 공급을 시작했다. 인디애나주 공장에서는 6세대(HBM4)를 포함한 이후 제품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6세대 제품부터 고객 맞춤형 생산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동(왼쪽) 주미대사가 3일(현지시각)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학에서 열린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투자 발표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주미대사관

삼성전자도 최근 올해 HBM 목표 생산량을 상향 조정하고, 생산 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국제 반도체 콘퍼런스 '멤콘(MEMCON) 2024'에서 올해 HBM 출하량을 전년 대비 최대 2.9배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월에는 전년 대비 2.5배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확대한 것이다.

특히 엔비디아 공급을 뚫게 되면 생산량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업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12단 HBM3E 평가 작업을 하고 있다. 2분기 내 승인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렸던 'GTC 2024' 행사장 내 삼성전자 부스에 마련된 HBM3E에 친필 사인과 함께 '젠슨 승인'(JENSEN APPROVED)이라고 적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HBM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 후공정 생산 라인에 신규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은 첨단 공정 증설·전환에 48조3723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전체 시설투자액 53조1139억 원의 91.07%에 달한다. 투자액은 2021년 43조5670억 원, 2022년 47조8717억 원 2023년 48조3723억 원 등 매년 늘고 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Z세대와 눈높이 소통"… LG 테크 컨퍼런스

이공계 인재 300여명 초청해
계열사 CTO들과 밀착 교류

LG가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국내 이공계 석·박사 과정 연구개발(R&D) 인재 300여 명을 초청해 'LG 테크 컨퍼런스 2024'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에는 계열사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최고경영진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LG의 기술 혁신과 비전을 알리는 한편, '연결'을 주제로 인재들과의 소통에 방점을 둔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였다.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 부회장은 "LG는 77년 동안 고객, 기술 그리고 인재를 중시하며 성장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크고 작은 기술들을 선보였다"며 "고객 경험을 혁신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LG와 여러분들이 연구와 기술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미래의 나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주요 계열사의 최고기술책임자들이 인재 유치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등 각 분야에서 연사로 직접 나섰다.

기술 강의는 기존 20분에서 40분으로 대폭 늘렸다. 또 2~3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기술 발표도 확대했다. 기술 발표 강연자는 30~40대 전문가로 구성해 석·박사들과 눈높이 소통이 이뤄지도록 했다.

LG는 참여에 방점을 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유전자, 신약개발, 전지, 재료·소재 분야 등 자신의 연구 주제나 성과를 소개하고, LG 임직원과 다른 참석자들에게 피드백 받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행사에 참석한 양세종 씨는 "회사가 생각하는 기술과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고, 나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LG는 행사장 곳곳에 Z세대 참석자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다. 포토 부스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엑사원을 활용한 AI 휴먼과 대화 체험도 진행했다. LG화학은 LETZero 존을 꾸려,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자신만의 키링을 만들어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다.

대학교 학과방 콘셉트로 구현한 공간 '텍콘과방'에서 참석자들이 LG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쉴 수 있는 장소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등 다양한 기술은 물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도 체험했다.

LG 관계자는 "기술 인재 유치를 위한 테크 컨퍼런스는 직접 채용에 나서는 LG 계열사들의 CTO·연구전문위원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밀접하게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구광모 회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인력구조를 고민하고, 미래 사업가 육성을 위한 각 계열사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에 무게중심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LG전자, B2B 의료기기 가속
진단용 모니터 풀라인업 출시

맘모그래피 모니터 신제품 출시
의료용 모니터 13종 라인업 완성

LG전자가 맘모그래피(유방 촬영 영상) 모니터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업간거래(B2B) 의료기기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 진단용 모니터(21HQ613D)는 21형 디스플레이에 5메가픽셀(MP) 고해상도로 유방의 미세 종양 및 석회화 판독에 특화된 제품이다.

신제품은 밝기와 명암비가 뛰어나 의사의 정확한 판독을 돕는다. 병변 부위를 부각하는 '포커스 뷰 모드'와 현미경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병리학 모드' 등 영상모드를 제공한다. 모니터를 회전하면 화면 콘텐츠를 자동 조정하는 양방향 오토 피벗도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FDA Class 2' 성능 인증도 받았다.

LG전자는 이번 신제품을 포함해 방사선 영상 판독에 주로 활용되는 3MP 제품, 화면 분할 기능을 갖춰 여러 사진을 동시에 진단 가능한 8·12MP 제품 등 진단용 모니터 주요 라인업을 모두 갖추게 됐다. 진단용(5종), 수술용(5종), 임상용(3종) 모니터 등 LG전자가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의료용 모니터는 총 13종에 이른다.

LG전자가 출시한 진단용 모니터(21HQ613D)는 21형 디스플레이에 5MP 고해상도를 갖춰 유방 판독에 특화된 제품이다. 사진제공 LG전자

LG전자는 의료용 모니터 라인업을 앞세워 대형 의료기관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모니터 제품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턴키 수주'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이윤석 LG전자 IT사업부장은 "맘모그래피용 모니터 신제품을 비롯해 압도적인 디스플레이 기술력에 기반한 다양한 의료용 모니터 라인업을 앞세워 B2B 의료기기 분야에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현대모비스 '카드형 스마트키'… 아이오닉 5 N 첫 적용

초슬림 카드 형태에 버튼 더해

현대모비스가 얇은 카드 형태의 자동차 스마트키를 출시했다. 기존 스마트키를 불편해하는 사용자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대모비스는 기존 스마트키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형 스마트 카드키를 국내 N브랜드 온라인 플랫폼에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이 제품을 아이오닉 5 N 차량에 처음 적용한다. 그동안 일부 수출용 제네시스 차종에 버튼형 스마트 카드키가 적용된 적은 있지만 국내 소비자용으로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버튼형 스마트 카드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카드키와 다르게 스마트키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기능 버튼이 없는 NFC 카드키는 차량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 때 카드키를 꺼내 차량 도어 등에 직접 접촉해야 작동된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도어 잠금이나 해제, 시동 걸기에 국한된다.

현대모비스가 기존 스마트키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버튼형 스마트 카드키'를 출시했다.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이와 달리 버튼형 스마트 카드키는 기존 스마트키처럼 버튼을 누르면서 문을 열고 닫거나 원격 시동, 원격 주차 보조(RSPA), 트렁크 열림, 원격 경보음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만 있어도 차량 문이 열리고 시동을 걸 수 있다. 초광대역 무선 통신(UWB) 기능으로 장치 간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 보안 안전성도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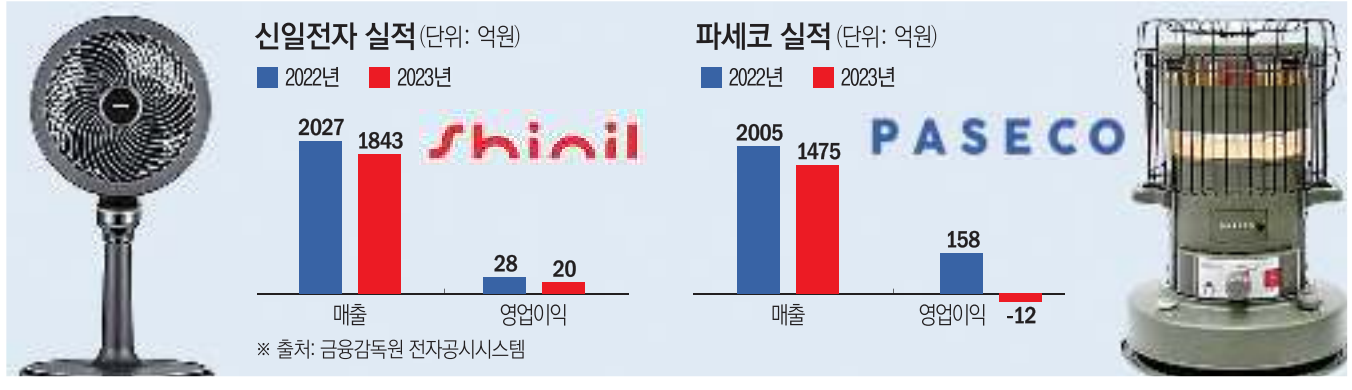
현대모비스 버튼형 스마트 카드키는 초슬림형 디자인도 특징이다.

이민재 기자 2mj@

물걸레 스팀 살균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스팀 살균 기능이 탑재된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청소기를 출시·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비스포크 AI 스팀'은 청소기 한 대로 먼지 흡입은 물론 물걸레 청소와 자동 세척, 스팀 살균까지 해주는 로봇청소기다. 삼성전자 모델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삼성스토어 청담점에서 3일 출시된 '비스포크 AI 스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계절가전’ 신일·파세코 동반부진… 불황 뚫을 전략은?

신일, 지난해 매출액 9% 감소
“서큘 등 AI 적용 신제품 출시”
파세코, 영업이익 적자전환
“홈쇼핑 등 B2C 판매채널 강화”



계절가전 강자로 꼽히는 신일전자와 파세코가 지난해 경기침체와 소비 부진에 실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신일전자는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신제품 출시로, 파세코는 내실 경영과 판매 채널 확대로 올해 성장세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일전자는 지난해 매출액이 1843억 원으로 전년(2027억 원) 대비 9.07% 감소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8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었다.

신일전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부문에선 선풍기 매출이 144억 원으로 전년(137억 원) 대비 소폭 늘었지만, 동절기 가전제품 매출액은 16억 원에서 1억 원대로 크게 떨어졌다.

국내·외 협력사 생산시설에서 나오는 상품부문 매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선풍기가 900억 원에서 817억 원으로 줄었고, 그 외 하절기 가전이 133억 원에서 86억 원, 동절기 가전이 565억 원에서 496억 원으로 감소했다.

수출은 지난해 1억3000만 원 수준으로 전년(18억 원) 대비 94% 급감했다.

신일전자의 대표 제품인 선풍기 등 소형가전은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업체가 적지 않다. 매해 기후요인에 따라 매출 변동이 발생하고, 지난해의 경우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실적이 악화한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여름 선풍기 매출은 9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 감소했고, 제습기, 이동식에어컨 등 선풍기 외 하절기 가전 매출은 86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35% 역성장했다. 이에 신일전자는 올해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해 매출 개선과 수익성 강화에 나선다. AI을 적용한 신제품 출시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이다. 김영 회장은 앞서 열린 신일전자 주주총회에서 “올해 상반기 AI를 적용한 로봇청소기, 음성인식 선풍기, 신개념 큐브 서큘레이터 등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세코도 지난해 소비 부진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파세코의 지난해 매출액은 1475억 원으로 전년(2005억 원) 대비 26.4% 뒷걸음질 쳤다. 2022년 158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적자(-12억 원)로 전환했다. 2021년 22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년 연속 악화세다.

파세코는 스토브(난로) 수출로 유명한 기업이다. 과거 미국이 공개했던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은신처 사진 속에 등장했던 난로가 바로 파세코의 제품이었다. 지금도 중동 지역과 러시아 등으로 팔려 나간다. 파세코에서 석유 난로 매출 비중은 40%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대표 상품인 난로 매출액이 589억 원으로 전년(727억 원) 대비 19% 감소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악화한 탓이다.

파세코 전체로 보면, 수출은 581억 원에서 487억 원으로 16% 줄었고, 빌트인 가전 사업이 핵심인 국내 매출은 1424억 원에서 988억 원으로 30% 감소해 국내외 사업 모두 부진했다. 건설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의 영향이 컸다.

파세코는 올해 경기 불확실성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수 부분에서 자사 온라인몰과 홈쇼핑 등 B2C(기업 소비자 간 거래) 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빌트인 가전 사업의 강점을 살리면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세트 판매 등을 통한 시장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교원, 학령인구 감소 직격탄 매출·수익성 악화 못 피했다

R&D·판관비 늘어 393억 적자
아이캔두는 성장…“사업 다각화”

웅진씽크빅, 대교와 함께 학습지와 에듀테크 시장 강자로 자리매김한 교원이 매출과 수익 저하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 외에 교육상품 판매량 저하가 영향을 미쳤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교원그룹은 지난해 교육사업에서 매출 8762억 원, 39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그룹 내 교육사업의 양대 축인 교원과 교원구몬을 보면 우선 교원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 3183억 원으로 전년보다 20.0% 줄었고 영업손실은 115억 원에서 507억 원으로 급증했다. 교원구몬 역시 매출은 5123억 원으로 8.3%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이 160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그룹 관계자는 “매출 하락은 학령인구 저하에 따른 사회 구조적 이슈 여파로 교육사업 부문의 학습지, 전집 등 교육상품 판매량이 감소했다”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수요가 늘었던 도요새 판매가 2023년 엔데믹을 기점으로 다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성은 에듀테크 경쟁력 강화 등 대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한 점과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판관비 증가로 전년과 비교해 이익이 줄었다”며 “수익성이 낮아진 사업을 정리하고 부실채권 회수 등 일시적인 회계 비용 지출로 인해 손실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사업 매출 감소에도 핵심 상품인 ‘아이캔두’ 에듀테크 상품의 매출과 회원 수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2021년 10월에 첫 출시한 아이캔두는 출시 1개월 만에 회원 수 5만 명을 확보한 데 이어 현재 9만 5000명의 회원 수를 유지하고 있다. 매출 또한 꾸준한 상승을 보이며 2022년 대비 지난해 아이캔두 상품 매출은 23% 증가했다.

교원그룹은 올해 에듀테크 상품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매출을 빠르게 회복하며 연내 교육사업의 1조 원 매출 탈환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우선 교원 빨간펜은 올해 기존 교육 사업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동안 쌓아 온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육아 및 아이 성장과 관련한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수익모델을 다각화한다. 기존 교육 상품과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을 책임지는 기업으로 발돋움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건강기능식품 ‘브레이니 아이 brain-i eye’를 출시해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확장했다. 교원은 아이 성장과 관련한 교육 외 상품 카테고리를 구축해 상품 확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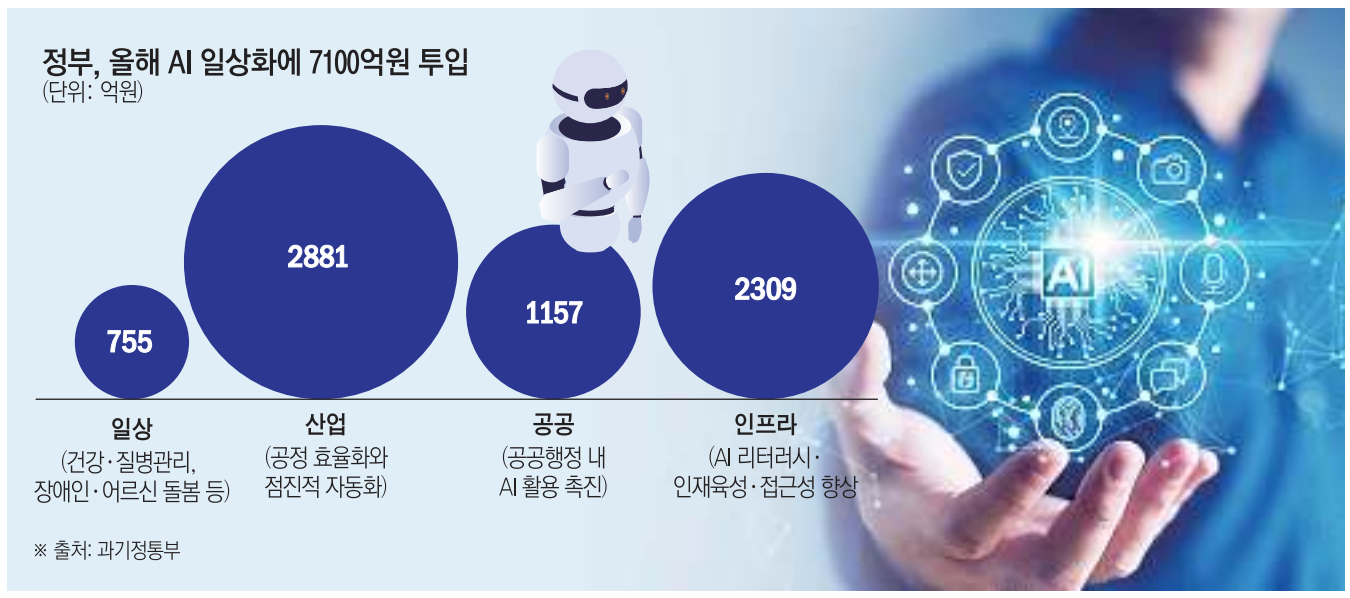
또 교원구몬은 50세 이상 시니어 등 고객을 다변화해 고객층을 확대한다. 그룹 관계자는 “시니어 학습 프로그램은 기존 구몬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자체 마련한 시니어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몬 교사들이 방문 지도하고, 두뇌 자극 및 노화 예방 중심의 시니어 대상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구몬학습은 시니어 관리 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 연수를 진행하고, 시니어들의 인지발달, 정서 케어 및 재사회화를 돕는 시니어 전용 매거진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존 유·초등생 중심으로 학습지 사업을 주력으로 삼고 경쟁력을 강화해 온 구몬학습은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지속 가능한 교육·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시니어 대상 학습 서비스 확장을 목표로 △구몬학습 시니어 대상 교육·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연구 진행 △구몬학습 시니어 학습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AI 전 국민이 활용하게”… 정부, 올해 7100억 쏟는다

과기정통부, 전략최고위協 발족
올해 69개 AI 일상화 과제 추진
사회복지·산업현장 분야 등 투입
연간 310조 경제효과 창출 예상



정부가 올해 710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일상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발족하는 첫 회의를 열고 올해 69개 AI 일상화 과제에 710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네이버·카카오·SK텔레콤·KT 등 IT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생성형 AI 등장으로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이번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이종호 장관과 민간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에서는 플랫폼, 통신사 등 각 기업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 23인이 민간 위원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도 협의회에 참여한다.

기업에서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사장 △이범규 팀 스파르타 대표가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부는 일상과 산업 현장, 정부 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일상과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 AI 도입에 755억 원, 산업현장에 2881억 원, 공공행정 AI 내재화에 총 1157억 원을 투입한다. AI 윤리 등 안전한 AI 기반 인프라 확충에는 총 2309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일상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AI 시대를 뒷받침할 AI 반도체 부문에 전략적인 기술 혁신, 온 디바이스, AI 신격차 확보 등을 함께 패키지로 묶은 전략도 범 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 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산하에는 기존 분야별 협의체 등을 활용한(또는 일부 신설) 6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100여 개 이상 AI 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고 제언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AI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 갈등·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한다.

이 장관은 “다음달 AI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무대에서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각국의 정상과 주요 기업 대표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사업 재개” vs “파산 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

법원, 회생개시 신청 기각 결정
“기존 수익모델 영업 지속 불가능”
델리오 “회사 정상화로 채권 변제”
신청인 “파산신청 통해 피해 회복”

서울회생법원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델리오 측은 사업 재개를 통해 채권 회수 및 변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생신청인 측은 파산신청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가상자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인 3일 가상자산 예치업체 델리오에 대한 회생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출금 중단 및 회생신청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개시신청을 기각하며 “델리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함이 명백하다”면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보다는 신속히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배경에는 올해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이 영향을 미쳤다. 델리오가 제3자에게 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다 출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 기존의 수익모델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회사 자산과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고, 고객에게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 종류, 동일 수량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델리오의 신사업 추진 계획 역시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재도 월 3000만 원의 유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델리오를 존속시키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봤다.

다만, 이에 대해 델리오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신사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건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당장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긴 어렵지만, 회사를 정상화하면서 준비할 것이고 당장은 채권회수와 변제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정문에는 델리오를 파산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나 문구가 없다”면서 “대다수 채권자들은 현재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신청인들을 대리했던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바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해 델리오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각 결정이) 델리오 서비스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경영진이 고객들에게 자발적인 피해 회복을 해도 좋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로집사 측은 특히 B&S홀딩스 실소유주인 A 씨와 렘마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국제도산절차를 활용해 파산신청을 진행해 A 씨와 관련된 FTX 채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 씨와 관련된 FTX 파산채권은 현재 1억6700만 달러 규모로, 해당 채권의 소유권과 관련한 재판이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A 씨와 렘마테크놀로지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 FTX 파산채권을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와 함께 하루인베스트 운영자, 델리오 운영자에 대한 파산신청 역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시온 기자 zion0304@
윤희성 기자 yoonheesung@

KT “제조 R&D 혁신”… 업무 효율 높인다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 출시
설계·기술지원까지 통합 서비스
작업 시간 줄이고 비용절감 효과

KT는 제조 연구개발(R&D) 영역을 공략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는 최적화된 클라우드 설계·공급부터 솔루션 제공, 기술 지원까지 통합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사는 필요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해석 자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작업 시간을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 및 솔루션 라이선스 구매, 시스템 운용·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해 기존 구축형 방식 대비 최대 6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 과금 방식으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 부담이 없으며, 산발적인 해석 업무 발생시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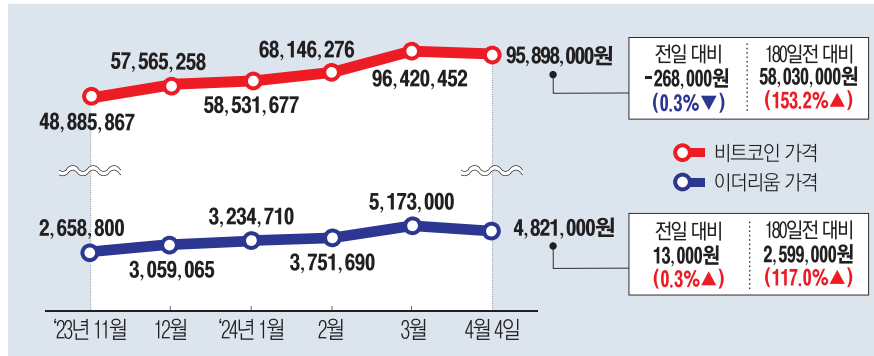
KT는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의 특장점으로 바로 E2E(End to End) 보안을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설계 데이터는 제조 R&D 기업의 중요한 기밀 사항으로 철저한 보안을 필요로 한다. KT는 전용회선, 플렉스-라인(Flex-Line), 가상사설통신망(VPN) 등 기업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사내망부터 KT IDC(데이터센터) 내에 운영하는 클라우드까지 네트워크 보안성을 보장했다.

KT는 최근 서비스 포털을 열고 자동차 부품 제조사, 스타트업, 파트너사 등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포털의 베타 서비스(CBT, Closed Beta Test)를 진행했다.

김태영 전략·신사업부문 클라우드 사업담당 상무는 “KT는 기업 간 거래(B2B) ICT 사업 경험과 역량 바탕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링 플랫폼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24년 4월 4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968,000	74,000 (8.3%▲)	이오스	1,407	-13 (0.9%▼)
리플	833	-22 (2.6%▼)	트론	171	- -
솔라나	268,300	-7,400 (2.7%▼)	스텔라루멘	185	-3 (1.6%▼)
에이다	835	-19 (2.2%▼)	비트코인에스브이	140,400	12,500 (9.8%▲)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백화점업계, 서울 외 실적 부진… 지방 점포 리뉴얼 속도

국내 백화점업계가 서울 외 지역 점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리뉴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고물가로 백화점 업황이 좋지 않은 데다, 주요 대형 점포가 아닌 서울 외 중소 점포는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업계는 F&B(식음료) 강화, 명품 브랜드를 유치 등의 출구 전략을 속속 내놓고 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1월 정준호 대표 직속 '중소형점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하고 대구점, 울산점, 포항점 등 지방 10개 점포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중소형 점포에 신규 브랜드를 유치하고 체험형 콘텐츠 강화 등을 통해 점포 경쟁력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 단위' 연매출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대형 매장인 본점, 잠실점과 달리 실적 부진에 빠진

롯데, 10년만에 수원점 재단장
현대, 중동점 브랜드 대거 입점
갤러리아, 롤렉스 매장 확대
신세계, 대구점 식품관 리뉴얼

지방 점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리뉴얼 점포는 수원점이다. 롯데백화점은 2014년 개점한 수원점을 10년 만에 올해 대대적으로 리뉴얼, 프리미엄 백화점과 쇼핑몰을 합친 복합몰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수원점은 인기 브랜드의 대형 플래그십 매장과 5000㎡(약 1512평) 규모 푸드홀 등을 연내 선보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중동점에 대한 대규모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찌, 발렌시아가, 페라가모, 몽클레르 등 신규 브랜드 4곳의 입점을 확정하고 명품카테고리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 목동점에는 상반기 중 이탈리아 브랜드 '발렉스트라'가 입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재 매출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부산점을 7월 말까지 운영하고 업태를 바꿔 새로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을 운영하는 한화갤러리아도 지방 점포 새단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지난해 전 점포가 역성장하는 등 실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지방 점포를 중심으로 리뉴얼카드를 꺼내들었다. 우선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내 스위스 명품시계 브랜드 '롤렉스' 매장을 기존 대비 3배가량 키워, 지난달 국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확장 오픈했다.

신세계백화점은 대구점 지하 1층 식품관에 '스위트 파크'를 8월 오픈하기 위해 리뉴얼 작업에 한창이다. 스위트 파크는 해외에서만 맛볼 수 있던 유명 디저트부터 국내 빵집 등 인기 디저트 매장을 한데 모아 놓은 공간이다. 올해 2월 강남점에 처음 문을 연 스위트 파크는 하루 평균 4만7000여명이 찾을 정도로 흥행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대구점의 F&B 카테고리 강화로 지역 내 매출 1위 점포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2019년부터 8년간 진행해온 경기점의 리뉴얼도 1월 모두 마쳤다. 전체 매장 면적의 90%에 달하는 4만6280㎡(약 1만4000여 평)의 공간을 새롭게 바꿨다. 특히 MZ세대고객과 가족 단위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아카데미, 리틀라운지, 영화관 등 문화·체험·서비스 시설을 강화했다.

문현호 기자 m2h@

국내 백화점 4사 서울 외 점포 리뉴얼 ※ 출처: 각 사

롯데백화점	수원점 인기 브랜드 대형 플래그십 매장과 약 1512평 규모 푸드홀 입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전 카테고리 리뉴얼, 쇼핑공간 1300평 확장 대구점 스위트 파크 신규 도입 공사 중
현대백화점	중동점·목동점 명품 브랜드 신규 입점
갤러리아백화점	갤러리아 타임월드 롤렉스 매장 확장,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구찌' 오픈

한미사이언스 임종훈·송영숙 공동대표 가동

한미그룹 '새판짜기' 시작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한 임종윤·종훈 형제의 새판짜기가 본격화됐다.

한미사이언스는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임종윤·종훈 형제 등 신규 이사 5명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기존 이사 4명이 모두 참석했다.

10시 30분부터 2시간 20여 분에 걸쳐 진행된 이 날 이사회에서는 창업주 차남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모친 송영숙 회장과 함께 한미사이언스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안건이 결의됐다.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경영권을 손에 넣으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이사가 맡고, 자회사 한미약품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맡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한미약품 이사회에 창업주 장남 임종윤 이사를 포함한 형제 측 이사진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진입시키는 안건도 논의됐다. 주주제안할 신규 이사진은 임종윤·종훈 형제와 지난달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형제의 편에 선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4명이다. 남은 1명으로는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와 김완주 전 한미정밀화학 대표이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내이사가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시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제51기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신규·기존이사 이사회 모두 참여
가족화합 '임시방편' 해석 지배적

사,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종윤 이사는 한미그룹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2010년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과 함께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에 올라 2016년부터 단독 대표를 맡았다. 2020년 임성기 회장이 별세한 후 송영숙 회장과 각자 대표를 지내다 2022년 3월 송영숙 회장이 단독 대표에 오르면서 물러났다.

임종훈·송영숙 공동 대표 체제는 그리 오래 가지 않을 전망이다. 두 형제가 강조한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임시로 공동 대표를 선택했단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미사이언스 주총 직후 임종윤 이사는 "(어머니·여동생과) 같이 가길 원한다"라고 라고 화해의 신호를 보냈다.

임종윤 이사가 꾸릴 한미약품의 미래 성장 계획도 관심사다. 그는 한미약품을 5년 안에 순이익 1조 회사로 만들고, 시가총액을 200조 원 규모로 불리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약품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위탁개발(CDO)·임상시험수탁(CRO)까지 확장하고, 마이크로 GMP를 통해 100개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권을 되찾으면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유혜은 기자 euna@

신세계百 '레스트앤레크레이션' 봄 신상품 공개 신세계백화점은 K-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레스트앤레크레이션(Rest & Recreation)'의 봄 신상품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올해 2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5층에 오프라인 유통사 최초로 입점한 레스트앤레크레이션은 김지은 대표가 전개하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다. R자를 형상화한 독특한 로고와 밑단의 애로우 디테일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은 애로우 포인트탑, 와이드진, 로고 코튼 볼캡 등이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마이구미, 오리온 9번째 '1000억 효자' 등극

베트남 현지 젤리 시장 1위 차지
매출 비중은 중국·한국·베트남 순

오리온은 국내 대표 젤리 브랜드인 마이구미가 글로벌 연 매출액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마이구미는 초코파이, 포카칩, 오!감자, 예감, 고래밥 등과 함께 매출 1000억원이 넘는 오리온의 9번째 메가 브랜드가 됐다.

마이구미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은 전년 대비 56% 성장, 1300억 원을 넘어섰다. 국가별 매출 비중은 중국 64%, 한국 26%, 베트남 10% 순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천연과즙 성분 젤리 수요가 크게 늘어, 73%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모두 33%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포도, 자두, 리찌, 키위 등 마이구미 '알맹이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MZ세대에 이르기까지 소비층이 확대되며 '젤리 재전성기'를 맞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무더운 날씨에도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조기술을 적용, 엄마가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젤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현지 젤리 시장 1위'를 차지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브티나는 생활', 인기비결은 브라이언과 20만 팬들의 소통"

첫 방송 10만명 시청·주문액도 7억원 달해
'방송 알림' 20만명… 방송 시간도 최근 늘려

"세련된 비주얼은 물론 브라이언과 고객간 소통, 친숙함을 강점으로 만들어진 팬덤이 '브티나는 생활'의 흥행 비결입니다." 4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CJ E&M커머스부문 본사에서 만난 이건욱, 김현애, 김보선 PD는 'CJ온스타일'의 대표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 방송(라방)으로 입지를 다진 '브티나는 생활' 흥행 비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브티나는 생활(브티생활)은 깔끔하고 살림꾼 이미지로 큰 인기인 가수 '브라이언'이 진행하고 있다. 그의 이미지를 살려 가구, 가전, 집꾸미기 등 주로 인테리어와 라이프스타일에 특화된 상품을 판매해오다 최근에는 뷰티 상품까지 확대했다. 2022년 3월 6일 첫 선을 보인 브티생활은 높은 인기 덕에 올해 2주년, 방송 횟수로는 117회를 맞았다.

이건욱 PD는 "고객의 삶을 부티나게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었다"며 "'부티나는 생활'에 브라이언의 앞글자 '브'를 합성해 방송명을 지었다"고 밝혔다. 이 PD는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높은 브라이언이 셀러(seller)로 적임자라고 보고 섭외를 했다"며 "알고 보니 브라이언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어린 시절

왼쪽부터 김현애, 이건욱, 김보선 CJ온스타일 '브티나는 생활' PD. 사진제공 CJ온스타일

장래 희망이었다"고 했다. 결과는 대박. 첫 방송을 10만 명이 시청하고 주문액만 7억 원에 달했다. 세 명의 제작진은 셀러의 '친숙함'과 '탄탄한 팬덤'을 인기 비결로 꼽았다. 김보선 PD는 "라이브 커머스를 업계 최초로 시작한 회사가 8년 여간 쌓은 노하우를 적용했다"면서 "브라이언이 피드백을 하거나 브라이언만의 특징을 살린 콘텐츠를 통해 친근감을 높여 탄탄한 팬덤을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김현애 PD도 "브라이언은 본인이 잘 소개할 수 있고 괜찮은 상품인지 살피고, 제품 선정에도 적극 참여한다"고 했다.

브티생활은 방송 2주년을 맞아 브라이언 자택에서 스페셜 방송 '브티 하우스'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선보인 바퀜 밀폐용기와 식기세척기는 브티생활 방송 제품 중 올해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첫 방송한 2022년 3월 6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페이지뷰는 670만 회, 평균 페이지뷰는 약 6만4000회다. 통상 라이브커머스 방송 페이지뷰가 2만회인 것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안마기 '바디프랜드' 판매 회차는 페이지뷰 42만회로, 브티생활 역대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약 20만 명이 '방송 알림' 신청을 설정해 놓을 만큼 고객 충성도가 상당하다. 뜨거운 고객 호응에 부응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진행한 정기 방송시간을 최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으로 늘렸다.

문현호 기자 m2h@

갈길 먼 '제4 인뱅' 관건은 자본금… 총선後 속도조절?

4파전 막올랐다

더존비즈온 '더존뱅크' 출사표
中企·소상공인 포용금융 도전

금융당국, 조만간 새 기준 마련
민주, 소상공인전문은행 공약
"자본력 갖춘 주주영입이 핵심"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앞두고 더존비즈온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기존 후보들과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자본금 확보가 관건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총선 결과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설립 여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은행인 '더존뱅크(가칭)'를 설립해 기업 데이터 기반의 혁신금융을 선보인다는 포부다.

더존뱅크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기업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력을 통해 기존 은행이 확장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서 포용금융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 방침을 변경해 상시 신청 접수 및 상시 심사 등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한 새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공식적으로 추진 중인 곳은 더존비즈온 외에 유뱅크(U-Bank)·소소뱅크·한국신용데이터(KCD) 뱅크 등 총 4곳이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현대해상·렌딧·루닛·트래블월렛·자비스앤빌런즈 등으로 구성돼 참여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초개인화 금융 서비스 개발을 지향한다. 소소뱅크는 전국 소상공인·소기업 관련 35개 단체가 모여 '소소뱅크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은행을 준비 중이다. KCD뱅크는 KCD가 소상공인 특화은행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혁신성과 포용성은 충족한 데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충분한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점과 주주 구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인터넷은행은 250억 원의 최소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인가 당시 자본금이 평균 2700억 원었다.

다양한 주주 구성도 요구된다. 앞서 토스뱅크가 2019년 5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주요 원인은 지배주주 적합성이었다. 모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영업적자를 기록하던 상황이라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미흡함이 지적된 것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제4인터넷은행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산업 자본은 물론, 은행과 같은 충분한 자본력을 지닌 전통 금융사까지 포함한 주주 구성이 필요하다"며 "대주주의 적격성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뒤늦게 도전장을 내민 더존비즈온도 이런 점을 의식해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형 시중은행과 정책기관, 유수의 대기업 등을 주주로 참여시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4·10 총선 이후 제4인터넷은행 추진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공약은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4개 컨소시엄이 모두 내세운 특징과 닮아있어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결정할 금융당국이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을 의식해 설립 추진 자체를 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연구원은 "은행업의 근간은 결국 자본인데, 충분한 자본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제4인터넷은행 추진에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유치 능력을 보유한 주주 영입이 성공 여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제4인터넷전문은행 후보 ※ 출처: 각 사

	주주 구성	특징
유뱅크(U-Bank)	현대해상, 렌딧, 루닛,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트래블월렛	• 주주들의 AI, 빅데이터 기술 활용 • 시니어 · 소상공인 · 외국인 등 금융 소외계층 특화
소소뱅크	각종 소상공인·소기업 연합단체 35곳	• 700만 소상공인 정보 모은 데이터허브 활용 • 소상공인 · 스타트업 위한 최적의 금융상품 제공
KCD뱅크	한국신용데이터	• 캐시노트 기반 170만 곳의 사업장 데이터 활용 • 소상공인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더존뱅크	더존비즈온	• 주주 보유 기업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 소상공인 특화 금융서비스 제공

고령자·청소년도 '마이데이터' 가입·조회 가능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 발표
휴면예금·보험금 등 한번에 조회
김주현 "국민 금융비서 역할 할 것"

앞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지난 현재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 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내놨다.

우선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정보 조회·활용이 가능해진다.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청소년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이 정확하게 적시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 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김주현〈사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국민에게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신한은행, 印 학자금대출 1위 기업 지분투자

〈크레딜라〉

지분 10% 취득…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1등 은행 더욱 공고히 할 것"

정상혁(오른쪽) 신한은행 은행장이 3일 인도 뭄바이 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아리지트 사냘 크레딜라 대표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글로벌 리딩뱅크' 수성을 위해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해외 채널의 차별적 성장을 위해 처음으로 지점 및 법인 형태가 아닌 지분투자 방식으로 진출한다. 국가별 차별화된 성장 전략 이행으로 손익을 극대화해 2030년 전행 이익 기여도 40%이상을 글로벌에 시장에서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신한은행은 인도 뭄바이에서 인도 NBFC(비은행 금융회사) 시장 내 학자금 대출 1위 기업 HDFC Credila Financial Services Ltd.(이하 크레딜라)와 지분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인도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국내 시중은행 중 최초 사례다.

지분 투자는 크레딜라가 증자를 하고, 신한은행이 약 1억8000만달러(약 240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크레딜라의 지분 약 10%를 취득하게 된다.

크레딜라는 2006년 설립된 학자금대출 전문 취급 금융회사로 해당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스웨덴의 글로벌 투자전문회사 'EQT 프라이빗 캐피탈 아시아'와 인도 1위 투자전문회사 '크리스 캐피탈'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이후 신한은행은 인도 최대 민영은행 HDFC은행 등과 크레딜라의 공동 주주가 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클레딜라 지분 투자로 신한은행 인도본부의 금융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협업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적 금융사는 물론 디지털 기업 등 다양한 현지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1등 은행'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범근 기자 nova@

하나銀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기업에 후세메닉스

수출 중소·중견기업 자금 등 지원

(왼쪽부터) 이승열 하나은행장, 최병철 후세메닉스 대표, 안덕근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 증정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하나은행은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중소 수출기업 후세메닉스에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1호 보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금융공급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이 특별출연 300억 원 및 보증·보험료 100억 원 등 기금 총 400억 원을 출연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및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총 5000억 원 규모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전달식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참석했다.

수출패키지우대금융 1호 보증서 발급의 주인공은 기계 제조업을 영위 중인 외감중소법인 후세메닉스로, 전 세계 20개국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PCB용 유압프레스 등을 공급하는 수출 중소기업이다.

최병철 대표이사는 "고금리로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던 중 수출패키지우대금융을 추천받아 진행하게 됐다"며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고 보증한도도 많이 받게 돼서 수출량 증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수협銀, 숙박사업자 전용대출 '파트너론' 내놔

Sh수협은행은 숙박사업자 전용 대출 신상품 'Sh숙박사업자 파트너론'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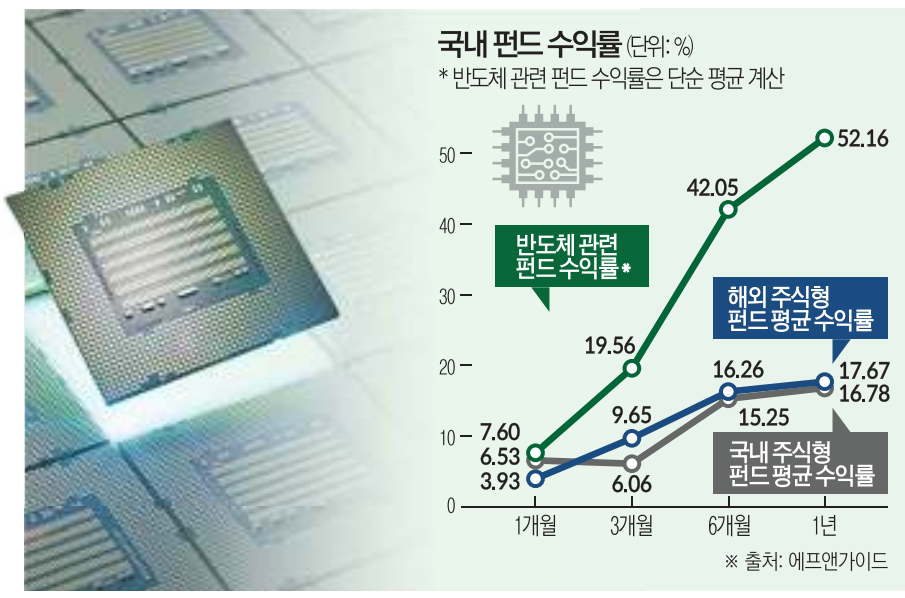
Sh숙박사업자 파트너론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추가한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등 대출한도와 금리를 동시에 우대하는 상품이다.

Sh숙박사업자 파트너론은 해당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며 신용등급 및 일정 거래요건을 충족하면 카드 매출액(플랫폼 서비스 매출 포함) 기준 최대 150% 이내에서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이재영 기자 ljy0403@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행진에… 반도체 펀드도 방긋

10억원 이상 '반도체 테마' 펀드
1개월 평균수익률 해외펀드 2배
3개월 19.5%·1년 52.1%까지 쑥
반도체 ETF 수익률도 동반상승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느니 건초 더미를 통째로 사는 게 낫다." 일부 종목을 사는 것보다 전 종목을 담는 게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라는 뜻이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삼성전자, SK하이닉스)을 찾아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건초 더미'(반도체 펀드)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평균 수익률이 20%에 달한다. 인공지능(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수요증가로 '반도체 봄'이 성큼 다가온 영향이다.

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일 기준 '반도체' 테마 펀드(10억 원 이상) 119개의 1개월 단순 평균 수익률은 7.60%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6.53%)과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3.93%)을 크게 웃도는 성과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더 높았다. 반도체 관련 펀드 98개의 3개월 단순 평균 수익률은 19.56%로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6.06%), 해외 주식형 펀드 수익률(9.65%)을 2~3배 웃돌았다.

반도체 관련 펀드(88개)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은 42.05%, 1년 평균 수익률(62개)은 52.16%까지 올랐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6개월의 경우 15.25%, 1년은 16.78%에 그쳤다. 해외 주식형 펀드도 6개월 수익률은 16.26%, 1년 수익률은 17.69%였다.

반도체 관련 펀드에서 1개월 수익률이 가장 좋은 상품은 '신한SOL반도체후공정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으로 32.19%를 기록했다. '한국투자ACE AI반도체포커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도 한 달 수익률이 31.54%에 달했다. 이 상품은 AI반도체포커스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담고 있다.

3개월 수익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미래에셋TIGER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합성)'이다. 이는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로 엔비디아, AMD, 퀄컴 등 글로벌 주요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30종목을 담고 있다.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레버리지 종목을 제외하면 1분기에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가 37.67%로 가장 높았다. 최근 SK하이닉스와 HBM용 장비 공급 계약을 맺어 주가가 뛴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수페타시스 등 국내 반도체 후공정 핵심 기업을 주로 담고 있다.

'반도체의 봄'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이다. 증권가가 예상한 1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6400억 원) 대비 732.9% 늘어난 5조 3300억 원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 1분기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걸로 예상했다. 덕분에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8만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SK하이닉스도 19만 원 바라보고 있다.

한미반도체가 생성형 AI 열풍에 힘입어 올해 들어 120% 넘게 폭등하는 등 반도체주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주의 강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 홍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섹터 및 삼성전자의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전망치는 3월 반등한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반도체 섹터의 상승 전망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

거래소, 이차전지 열풍에 지난해 영업이익 2866억

이차전지 열풍으로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한국거래소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 이자수익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굴려서 얻는 금융수익이 100% 넘게 증가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의 지난해 매출액은 2022년(5906억 원)보다 9.27% 증가한 6453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9.22% 증가한 2866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3258억 원으로 전년(3014억 원) 대비 8.07% 상승률을 올렸다. 호실적의 배경에는 지난해 이차전지 열풍이 불면서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데 있다. 지난해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 원으로 2022년(9조 원)보다 6.7% 증가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DX 등 이차전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도 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44.9% 증가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금융수익이다. 거래소의 영업 외 손익에서 금융수익은 2022년 1424억 원에서 지난해 2850억 원으로 100.14% 증가했다. 이중 금융자산 평가손익은 2022년 마이너스(-) 681억 원에서 약 944억 원 늘어나 263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과 자금운용 손익의 흑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리동결 흐름으로 채권평가 손실 규모가 축소한 점도 수익에 기여했다. 거래소의 채권이자수익은 지난해 약 60% 증가했다.

거래소의 전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2년 2조5463억 원에서 40% 넘게 늘어 지난해 3조6632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기타수익은 감소했다. 배당금 수익과 소송충당부채환입액이 각각 17.8%, 22.8% 감소해 354억 원과 183억 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회인 기자 hihello@

거래소, 11개 대표기업 간담회

기업들 "밸류업 성공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 필요"

정부·관계기관의 일관된 지원과
밸류업 지수·ETF 편입 추진 필요
자율성 부여해 적극 참여 유도를

정은보(앞줄 왼쪽 네 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4일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 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기업들이 성공적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대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시장을 대표하는 코스피 상장기업 11개사(미래에셋증권, 삼성전자, KT, KT&G, 코리안리, 현대자동차, BNK금융지주, CJ제일제당, KB금융, LG화학, NAVER)가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에 2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일정을 소개하고,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기업들은 기관투자자 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사회 역할, 자율공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에 대한 정부·관계기관의 지원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기조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의 밸류업 지수·상장지수펀드(ETF) 편입 및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해 기업 밸류업과 투자 사이에 선순환이 구축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사회의 역할과 관련해선 과도한 부담은 형식적 참여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자율성을 부여해 적극적·실질적 참여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함에 불성실공시 가능성 등 공시 관련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 중인 세제지원 방안이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거래소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표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거래소는 이번 대표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기업 밸류업 자문단에도 전달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세부사항 설계시 반영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우리운용, K-리츠 ETF 상장 채비… 시장 '메기' 될지 주목

국내 상업용 부동산 상장리츠 집중

우리자산운용이 국내 상장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인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자산운용은 이달 말 상장을 목표로 '리츠 ETF'를 준비 중이다. 리츠 ETF는 개별 리츠들을 선별해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데 이점이 있다.

해당 ETF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을 담은 상장리츠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24개에 달하는 상장리츠 중에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주를 제외하면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해외 상업용 부동산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손실 우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리자산운용 리츠 ETF가 상장하면 리츠 관련 ETF 시장에서 '메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리츠 ETF 간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장된 국내 상장리츠 ETF는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ARIRANG K리츠Fn △히어로즈리츠이지스액티브 등 총 4종목이다.

이들은 모두 시총가중방식으로 상장리츠를 골라 담아 금리 인상기 동안 저평가된 리츠를 선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해당 ETF 모두 해외 부동산이 포함된 상장리츠를 구분 없이 담고 있는 것도 이 이유에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리츠 ETF 개발 건으로 자산운용사들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다"며 "리츠주 주가도, 관련 ETF도 성과가 좋아서 (상장) 때를 노리고 있는 곳이 많다"고 했다.

리츠 시장의 회복세에 비해 아직 리츠 ETF의 운용자산 규모가 작다는 점도 운용사에겐 상품 경쟁에 뛰어들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각 리츠 ETF별 순자산총액(AUM)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4121억 원)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234억 원) △ARIRANG K리츠Fn(69억 원) △히어로즈리츠이지스액티브(49억 원) 순이다. 손민지 기자 handmin@

‘국평 12억’ 용인 미분양 단지, GTX-A가 뚫었다

고분양가 논란에 미계약 쏟아진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올들어 50건 가까이 분양권거래 최고 9000만원 프리미엄 붙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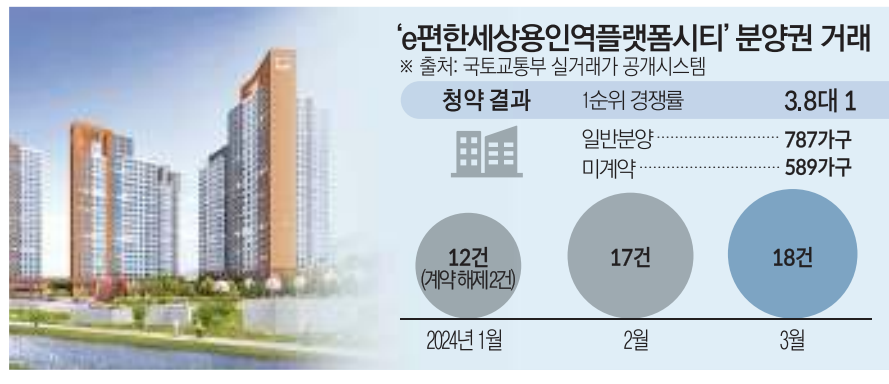
GTX 용인·분당선 구성역 이용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도 영향

지난해 용인 최초로 ‘국민평형’ 분양가를 12억 원에 책정했다가 고분양가 논란에 대거 미분양 됐던 단지가 활발한 분양권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남부 최대 개발사업인 ‘용인 플랫폼시티’와 지난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개통이란 겹경사가 맞물리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며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e편한세상용인역플랫폼시티’ 분양권은 총 18건이 거래됐다. 다음달 말까지 신고기한이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거래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2월 분양권 거래량은 17건, 1월 12건(계약 해제 2건)으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와는 별개로 분양권 거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타입별로 보면 웃돈이 붙은 상승 거래는 대형 평형 물량에 집중됐다. 2월 거래된 전용면적 81 A㎡ 분양권은 분양가 대비 5556만 원의 피(프리미엄)가 붙어 팔렸다. 지난달 거래된 전용 114 B㎡ 분양권 역시 3000만 원이 오른 값에 매매됐다.

분양가 대비 하락한 값에 체결된 거래도 있었지만, 거래량 자체가 늘면서 손바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기준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의 경우 최고 9000만 원 웃돈이 붙어 올라와 있다.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지난해 5월 1순위 청약 787가구 모집에 3015명이 접수, 평균 경쟁률 3.83대 1을 기록하며 선방했다. 하지만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12억3500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기준 용인에서 국민평형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긴 것은 이 단지가 처음이다. 결국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계약을 대거 포기하면서 전체 787가구 중 절반 이상인 589가구가 미계약 물량으로 풀렸다.

시행사 MDM 측은 전용 74㎡와 84㎡ 일부 잔여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지만,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리면서 쉽사리 미분양을 소진하지 못했다.

이처럼 답답하던 거래 흐름이 바뀐 데는 GTX-A의 조기개통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해 말 수서~동탄 구간의 3월 개통을 확정한 이후 GTX-A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단지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면서 훈풍이 분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수도권 남부 핵심거점 도시를 조성하는 용인 플랫폼시티의 대표적인 수혜 단지란 점과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215만여 평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대형 개발 호재까지 더해져 투자 수요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분양권 거래 증가는 GTX-A 개통 효과 덕을 본 것”이라며 “고분양가 등으로 미분양 됐던 단지라도 수혜가 기대되는 점에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개통 프리미엄은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된 상태인 만큼 이후 추가 상승 모멘텀은 제한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진리 기자 truth@

“지방도 여기는 된다”…거점도시 분양 공략하는 대형 건설사

지방거점도시 1분기 분양 물량 10대 건설사가 77.5% 차지

포스코이앤씨, 전주 ‘서신 더샵’ 55.59대1 지방 단지 최고경쟁률

원주·여수·익산 등 분양 잇따라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 사진제공 대우건설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조감도. 사진제공 현대건설

‘익산 부송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제공 HDC현대산업개발

대형건설사들이 지방 미분양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거점 도시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른 지방 중소도시보다 인구가 많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만큼 수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거점 도시(수도권, 광역시 제외) 분양 물량 1만2523가구 중 10대 건설사는 77.5%인 9702가구를 공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87가구, 48.4%에서 규모와 비중이 모두 커진 것이다.

지방 거점 도시에 분양되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2월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전북 전주시에 분양한 ‘서신 더샵 비발디’는 644가구 모집에 3만579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경쟁률이 55.59대 1을 기록했다. 올해 지방 분양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같은 달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선보인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1342가구 모집에 8532명이 몰려 1순위 평균 6.3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동안 지방 거점 도시 공급이 많았던 중견 건설사 아파트보다 평면, 설계, 마감재, 커뮤니티 등의 상품성이 우수하고 사업 안정성도 높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건설사들은 이달에도 지방 거점 도시에서의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1052가구 규모다.

또한 현대건설은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죽림 1지구 A2·A4 블록 ‘힐스테이트 죽림 더프라우드’를 분양한다. △A2 블록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15개 동, 931가구 △A4 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5개 동 1272가구가 들어선다.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여수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이 편리한 위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북 익산시 부송동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익산 부송 아이파크’를 준비하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 3블록에 들어서는 ‘더샵 탕정인피티니티시티 2차’를 분양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거점 도시는 교통, 편의, 문화, 업무 등의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수요가 풍부하다 보니 대형 건설사 진출이 활발하다”며 “지방 거점에서 희소성과 상징성도 확보할 수 있어 앞으로도 물량을 계속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투명경영·브랜드 차별화 전략 두산건설, 지속가능 경영 토대

두산건설이 투명경영과 브랜드 차별화 전략으로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두산건설은 단순 시공을 제외한 모든 프로젝트의 100% 완판에 성공했다. 계약 호조에 실적도 급성장했다. 2022년 대비 매출액은 약 4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00% 급증했다.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주는 지난해 2조7000억 원을 달성해 3년 연속 2조 원 이상을 수주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9조6000억 원으로 향후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두산건설 실적 개선의 바탕에는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투명경영 철학이 있다. 두산건설이 말하는 투명경영이란 모든 비즈니스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미래 위험까지 확인해 경영에 반영한다는 원칙이다. 아울러 두산건설의 부채비율은 건설업계에서도 높은 편이지만 다른 건설사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건설업계의 문제로 드러난 PF 우발채무나 부채의 증가로 부채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투명경영을 통한 선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산 재평가 등이 반영돼 자본 부분 감소로 부채비율이 높아 보이는 구조 때문이다.

향후 성장성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수주 방침도 세웠다. 두산건설은 올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분양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투명경영과 선제적 리스크 반영, 브랜드 강화, 전 직원의 협심을 통해 성장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100년 기업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작년 100% 완판행진
3년 연속 2조대 수주
5년째 영업이익 흑자

두산건설 ‘위브(We’ve)’ 브랜드 BI.

부부 합산 소득기준 ‘1.3억→2억’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특례대출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늘어난 2억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기준은 기존 1억3000만 원보다 7000만 원 오른 2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보다 2500만 원 오른 1억 원으로 완화됐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1월 말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에 대해 시행 중이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10월 한 차례 소득요건을 기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 원 이하)보다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SK에코플랜트 ‘웨이블 EPR 서비스’ 시작

디지털 폐기물처리시스템 강화

SK에코플랜트는 현재 운영 중인 종합 폐기물처리시스템 ‘웨이블 서큘러(WAYBLE circular)’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지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EPR제도는 상품이 판매된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03년 마련됐다. 정부는 포장재(종이팩, 캔, 합성수지, 유리병 등)와 특정 제품군(전지, 타이어, 건설자재 등)을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품 생산자가 분담금을 중간 기관인 재활용 공제조합에 납부하면 공제조합은 이를 재활용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SK에코플랜트가 이번에 선보인 서비스는 계량 시스템 일원화를 통해 재활용 실적을 보다 투명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했던 관리대장, 실적보고서 등 각종 문서도 자동 생성돼 공제조합에 실시간 전송된다. 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물론 과거 업무 기록도 추적할 수 있다.

조재연 SK에코플랜트 Environment BU대표는 “이번 서비스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EPR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웨이블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만성적자인데… 더 까다로워진 서울 대중교통요금 인상

국민의힘 이병윤 서울시의원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전 시민 의견 수렴 강제

2022년 지하철 17.6兆 손실
시내버스 적자규모 1兆 육박
운임 현실화율은 50~60%대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시의회 심의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 조례안은 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조정 과정에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같은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병윤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2월 9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는데 공청회는 그 다음 날인 10일에 열렸다. 이 의원은 "시는 시민 의견을 듣고 이를 수렴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시가 요금 조정안을 만들고 시의회 상임위에 접수한 후 공청회를 여는 일이 많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요금 조정안을 제출하기 전, 시민 의견을 반영한 청취안을 만들도록 못 박은 것이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례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향후 요금 인상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버스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요금 현실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 인상 추진은 매우 민감한 이슈다. 2022년 기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000억 원을 넘어섰다.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으로 쏟아부은 돈은 891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4561억 원, 2022년 8114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반면 지난해 기본요금에 각종 할인과 무임승차 등을 반영한 버스 평균운임은 938원으로, 운송원가 1440원에 턱없이 못 미쳤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502원의 적자가 나는 구조다. 1인당 운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을 나타내는 운임 현실화율은 65%에 불과했다. 지하철 역시 승객 1명당 수송원가는 1760원이지만 평균 운임은 962원에 불과해, 운임 현실화율이 54%에 그쳤다.

만성적자에도 요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2015년 1250원, 1200 원에서 8년 만인 지난해 각각 150원, 300원 올랐다.

김서영 기자 0jung2@

국내 정상급 갤러리 한자리에…2024 화랑미술제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화랑미술제'에서 참관객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156개 갤러리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는 7일까지 열린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교육부-금감원 '늘봄학교 금융교육' 맞손

금융교육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저학년 프로그램·전문강사 등 지원

"최근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대리 입금' 같은 금융범죄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준환 부원장보 등을 만나 '늘봄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차관은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발달로 많은 학생들이 과소비·모방소비 환경에 놓이게 됨에 따라 소비·저축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늘봄학교 내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늘봄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운영지원,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 활용을 통한 금융교육 콘텐츠 연계 및 공유,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지원 등 협력 등의 논의가 오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해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눈높이를 고려한 금융지식이 평생 금융습관의 밑거름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금융교육이 지속적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LG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소송 1심 패소

비상장 LG CNS 주식가치 쟁점
법원 "세무당국 시가평가 적정"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비상장 계열사인 LG CNS 주식 97만2600주를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1769만 원을 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주당 2만9200원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며 126억6458만 원(가산세 18억2301만 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다.

원고들은 세무당국이 LG CNS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 CNS는 주식과 거래규모, 거래방식이 상이하고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점, 가격 조작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심의를 거쳐 거래가액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 회장 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수진 기자 abc123@

4일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개원한 치매안심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북병원에 중증환자 전담 '치매안심병원'

요양보호사 15명 3교대 관리
2026년까지 2곳 추가 지정

서울에 중증치매 전담병원이 처음 문을 열었다. 4일 서울시는 서울 서북병원 내 31개 병상 규모의 '치매안심병원'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7일 서울 서북병원을 서울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치매안심병원은 행동심리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돕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치매안심병원에서는 가족 간병없이 요양보호사 15명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치료를 돕는다. 병원은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치매전문치료진이 치매진단부터 약물치료, 동반 신체질환 관리 등 집중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은향 서북병원 신경과장은 "병원 치료를 통해 환자들을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치매안심병원 2곳 추가 지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채빈 기자 chaebi@

'안식일 면접거부' 로스쿨 불합격… 대법 "기본권 침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토요일에는 모든 종류의 세속행위를 금지한다는 교리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을 포기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 A씨가 전남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재림교 신자인 원고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2심 결과를 인용했다.

2010년 전남대 로스쿨에 1단계 합격한 A씨는 면접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잡히자 학교 측에 일몰시각 이후로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접에 응하지 않은 A씨가 최종 불합격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2021년 9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은 2022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양심·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 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고도로 보장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박꽃 기자 pgot@

“단독 1위 올라갔다고?”… 한화 팬들, 고산병에 ‘기쁨 앓이’

8차례 최하위만 기록하다
‘몬스터’ 류현진 복귀로 탄력
루키 황준서·문현빈 ‘맹활약’
32년만에 개막 8경기 7연승
팬들 “너무 높아 숨 못 쉬어”
만년꼴찌 탈출 행복한 비명

프로야구 구단 한화 이글스가 올 시즌 초반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오랫동안 하위권을 전전했던 한화를 묵묵히 응원하며 ‘보살팬’이란 별명까지 붙은 한화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환호하고 있다.

한화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열린 2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의 1만2000석 관중이 꽉 들어찼다. 한화 홈 개막전 이후 4경기 연속 매진 행진이다. 한화 이글스 팬들을 구장으로 끌어모은 것은 한화 이글스의 연이은 승리다.

이날 한화는 롯데에 0-1로 패했으나 7승 2패로 단독 선두 자리를 지켰다. 한화가 개막 8경기 7연승을 거둔 것은 1992년 이후 32년 만이다. 또 3연전을 연속 두 번 모두 이기기는 2006년 5월 12~18일(대전 롯데전, 문학SK전) 이후 약 18년 만이다.

사실 야구팬들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복귀한 한화가 올 시즌 두드러진 활약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데뷔해 MLB로 직행한 최초의 선수이자 한국인 최초 사이영상 후보였던 류현진의 국내 리그 복귀는 한화를 넘어 국내 야구 전체의 이슈였다.

다만 류현진은 현재 선발진 중 유일한 ‘무승’인 투수다. 하지만 류현진은 존재 자체만으로 한화 선수단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최원호 한화 감독은 프로야구 개막 전 미디어데이에서 1선발을 소개하며 “개막전 선발은 ‘다른 팀에 없는’ 류현진”이라고 말하며 류현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기에 루키 황준서의 깜짝 활약도 돋보인다. 황준서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유망주다. 지난달 31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T전에서 선발로 나선 황준서는 5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잡는 호투로 팀의 14대3 대승을 이끌었다.

이는 KBO리그에서 고졸 신인이 데뷔전 선발승을 따낸 10번째 기록이다. 한화에서는 2006년 류현진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시즌 영입한 요나단 페라자의 활약도 눈에 띈다. 페라자는 좌타 우타 모두 가능한 스위치 타자다. 3일 기준 페라자의 타율은 0.500, OPS(출루율+장타율)는 1.554로 2위와 큰 격차를 둔 1위에 올랐다. 지난달 31일 경기에서도 3회 2점 홈런을 때려내며 시즌 4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문현빈과 임종찬 등 북일고-한화로 이어지는 ‘성골 라인’도 활약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KT와의 3연전 1차전 경기에서 9회말 2아웃 2대2 상황, 임종찬은 좌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이끌었다.

문현빈은 현재 한화의 1번 타자다. 올 시즌 문현빈은 볼넷, 내야안타, 외야안타, 홈런까지 가리지 않고 쳐내며 주전 2루수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한화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6년 동안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횟수가 단 한 번(2018년)밖에 없었다. 심지어 이 기간 중 무려 8차례나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시즌 확 달라진 모습에 한화 팬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들은 “1위라니, 너무 높아 숨이 안 쉬어진다” “이게 고산병이라는 것인가” “올해 가을야구는 당연” “진짜 올해는 다르다” “우승 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화의 구단주이자 가장 큰 팬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달 29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경기에 깜짝 방문해 한화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다. 김승연 회장이 야구장을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었다. 김승연 회장은 두둑한 금일봉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정아 기자 jjonga1006@

예술 향한 백남준의 열정… 영화·전시로 다시 만나다

작년 개봉 ‘달은 가장 오래된 TV’
넷플릭스 등서 꾸준히 사랑받아
대표작 만날 수 있는 ‘함’展 화제
아트센터 기념 특별전 이목 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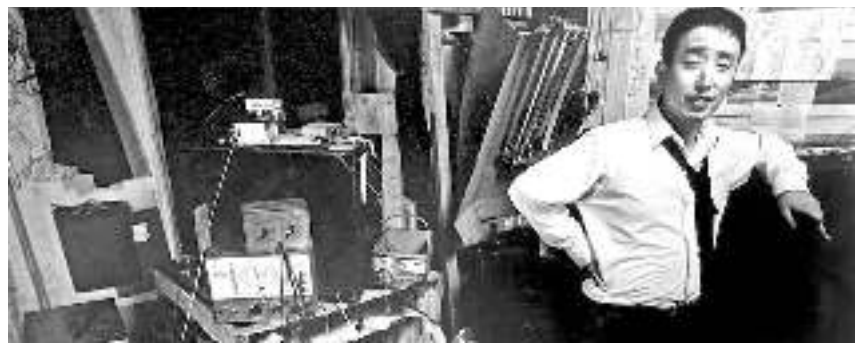
시대를 앞서간 아티스트 백남준을 조명하는 영화·전시 등이 화제다. 그의 예술적 발자취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비롯해 학고재 갤러리 등 여러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백남준 전시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4일 영화·미술계에 따르면, 백남준의 인생과 예술을 담은 영화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는 지난해 12월 개봉 이후 넷플릭스 등 OTT를 통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백남준의 예술적 이력은 물론, 비디오 아트 분야를 개척한 업적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영화는 2023년 가디언 선정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됐다. 제39회 선댄스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기도 했다. 영화제 관계자는 “백남준은 말 그대로 미친 삶을 살았다”라며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의 일대기 담은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평했다.

그의 작품은 ‘관습으로부터의 탈주’로 요약할 수 있다. 영화에서 그는 “제 피아노 보실래요?”라고 말하며 피아노를 망가뜨린다. 속옷과 달걀 껍질 등으로 장식한 ‘이상한 피아노’ 앞에서 사람들은 피아노의 물질적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이처럼 백남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을 끊임없이 재정의하며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창조한다.

영화를 연출한 한국계 미국인 어맨다 킴 감독은 “백남준을 단순히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정의할 수 없다. 그는 언제나 패턴을 읽었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한다.


영화 ‘백남준: 달은 가장 오래된 TV’ 스틸컷. 사진제공 엣나인필름

아울러 이 영화는 ‘미나리’, ‘성난 사람들’ 등을 통해 사랑받은 배우 스티븐 연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백남준의 글을 직접 읽는 해설자로 참여해 특별함을 더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백남준 전시도 화제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학고재 갤러리의 ‘함(咸): Sentient Beings’에는 ‘W3’(1994), ‘인터넷 드웰러: mpbdcg.ten.sspv’(1994), ‘구-일렉트로닉 포인트’(1990) 등과 같은 백남준의 대표작이 전시돼 있다.

특히 ‘W3’는 백남준이 말년에 즐겨 읽은 ‘주역’에서 영감을 받은 거로 알려져 있다. 64개의 TV 모니터로 구성된 이 작품은 ‘주역’의 64괘를 뜻한다. 동시에 64개의 모니터는 64비트를 상징하기도 한다.

또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백남준의 위성 3부작의 시작을 알렸던 작품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40주년 기념 특별전 ‘일어나 2024년이야!’가 진행 중이다.

과천시민회관 갤러리마루·아라에서는 16일부터 기획전시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 백남준 판화전’을 선보인다.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설치 작업 등 의미 있는 작품들을 판화로 남긴 백남준의 판화 및 드로잉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다.

전시 관계자는 “미래의 인터넷과 유튜브 세상을 예견한 듯한 느낌이 백남준의 작품에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흥미롭다”라며 “특히 유튜브를 통해 모두가 자신의 플랫폼을 갖고 있다. 백남준의 작품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이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시대 크리에이터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석주 기자 ssp@

1세대 조경가 정영선의 '일곱 빛깔 땅의 年代記'

국립현대미술관서 전시회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오픈
아카이브 대부분 최초로 공개
설계도 등 자료 500여 점 조망
배우 한예리 오디오가이드 녹음
크게 7개 '묶음'으로 나눠
관객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4일 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는 한국 1세대 조경가 정영선의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 전시 언론공개회가 열렸다. 사진은 전시 전경. 사진제공 국립현대미술관

한국 1세대 조경가 정영선〈사진〉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 개최된다.

4일 미술관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한국 1세대 조경가 정영선의 삶과 예술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1970년대 대학원생 시절부터 현재 진행형인 프로젝트까지 반세기 동안 성실하게 펼쳐 온 조경 활동을 총망라하는 전시다.

60여 개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대한 조경가의 아카이브 대부분이 최초로 공개된다. 파스텔, 연필, 수채화 그림, 청사진, 설계도면, 모형, 사진, 영상 등 각종 기록자료 500여 점을 한 자리에서 조망한다.

미술관 관계자는 "정영선의 주제별 대표작을 엄선해 선보임으로써 도시 공간 속 자연적 환경이 설계된 맥락과 고민, 예술적 노력을 드러내고 이러한 사유와 철학을 조경건축의 직능을 넘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환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영선은 우리 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고유 자생종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번 전시는 그 노력의 일환인 셈이다. 특히 전시 제목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는 정영선이 좋아하는 신경림의 시에서 착안했다. 그에게 조경은 미생물부터 우주까지 생동하는 모든 것을 재료 삼는 예술이다.

미술관 관계자는 "전시는 정영선의 작품 세계를 국가 주도의 공공 프로젝트와 민간 기업이 의뢰한 정원과 리조트, 역사 쓰기의 방법론으로서 기념비적 조경과 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수목원과 식물원 등 작업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재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대기적 서사를 지양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제 부흥과 민주화 과정이 동시적으로 발현된 한국 현대사의 특징과도 맥을 같이 한다. 동시에 수많은 유형의 작업이 공통적으로 정영선이 강조하는 '지사(地史)적 맥락'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전시는 크게 7개의 '묶음'으로 나뉜다. 경계가 느슨한 최소한의 구획을 통해 관람객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각 프로젝트의 맥락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자연주의 정원 속을 거닐 듯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주제들의 우연한 마주함과 포개어짐을 의도했다.

첫 번째 묶음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역사 쓰기'에서는 '장소 만들기'의 현장이 된 조경의 사례를 살펴본다. 일제강점기 철길 중 유일하게 조선인의 자체 자본으로 건설된 경춘선을 공원화한 '경춘선숲길'(2015~2017)이 대표적 사례다.

두 번째 묶음 '세계화 시대, 한국의 도시 경관'은 한국을 찾는 세계인에게 선진화된 도시 경관의 인상을 주기 위해 동원된 사업을 다룬다. 세 번째 묶음 '자연과 예술, 그리고 여가생활'은 경제 성장이 동반한 생활양식의 변화로 수요가 생긴 가족 단위 여가활동의 장소들을 소개한다.

네 번째 묶음 '정원의 재발견'은 우리 고유의 식재와 경관, 공간 구성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정원을 들여다본다. 다섯 번째 묶음 '조경과 건축의 대화'는 건축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탄생한 조경 작업을 살펴본다.

여섯 번째 묶음 '하천 풍경과 생태의 회복'은 도심 속 물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작업을 다룬다. 특히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등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 기반 시설에 물의 공간을 마련한 그의 노력이 소개된다. 일곱 번째 묶음 '식물, 삶의 토양'은 수목원과 식물원, 자연의 치유적 속성이 강조된 명상과 사색의 장소들을 조명한다.

이번 전시에는 배우 한예리가 오디오가이드에 목소리를 재능 기부했다. 한예리는 "반세기에 걸친 작가의 대표작이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아름답게 숨 쉬고 있어 놀랐다"라며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경가 정영선이 평생 일군 작품세계 중 엄선한 60여 개의 작업과 서울관에 특화된 2개의 신작 정원을 선보이는 특별한 전시"라며 "그의 조경 작품에서 나타나는 '꾸미지 않은 듯한 꾸밈'이 있기까지의 각고의 분투와 설득, 구현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 정영선의 조경 철학을 깊이 있게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는 식목일인 5일부터 9월 2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다.

송석주 기자 ssp@

환경 파괴, 개발로부터 숲을 구한
스웨덴-독일-한국 십대들의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탄탄하고 흥미롭게 쓰인 청소년 환경 논픽션!

* 스웨덴 십대들이 구한 코스타리카의 '영원한 어린이의 숲'
* 독일의 아홉 살 소년 펠릭스 핑크바이너에서 시작된 '나무 1조 그루 심기 운동'
* 원시림 '곶자왈' 개발을 막은 제주의 아이들

♣ "세 편 모두 실화란 점이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한다." — 신경준(숭문중학교 환경교사, 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 EBS중학 환경 강사)
♠ "어른들은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일단 해 본다. 지구가 계속 숨 쉬는 건 이런 사람들 덕분이다." — 이용규(선흘초등학교 교사)
♣ "걱정,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책의 주인공들처럼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자! 책을 읽는 내내 뭉클하고 벅찼다." — 안도연(안산초등학교 교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회원)
♠ "동물, 숲, 강, 바다, 지구를 지키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지역, 나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책은 그 거대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 문용포(곶자왈작은학교 대표교사)

살아남은 세 개의 숲 이야기 글 공주영 | 그림 공인영 | 184쪽 | 14,000원 | 주니어태학

시인 나태주

이견이 없었다. 지금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른은 누구일지 고민했던 편집회의에서 기자들은 나태주 시인을 꼽았다. 만장일치였다. 대중도 마찬가지다. MZ세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에게 그는 인기를 넘어 추앙에 가까운 현상의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막 낯익어진 마이너한 시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흔히 말하는 팬덤 같은 것이죠. 날씨도 팬덤이 되고 계절도 팬덤이 돼요. 눈과 비가 고르지 않게 한꺼번에 내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것뿐이죠. 낯익고 익숙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는 책을 통해 "시인은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돌보는 서비스맨"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그것이 통했던 것 같다. 마치 '풀꽃'의 한 구절처럼 나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봐주길 기대했기 때문일까. 책을 내놓을수록 20~30대 사이에서 강한 소구력을 발휘했다. 그 소감의 물결에선 희망과 위로, 치유 같은 단어들이 떠다녔다.

젊은 시절엔 채우고 노년엔 비워내야
권위 내세우지 않는다면 청년도 변화
젊은이들에 "좋아하는 일 하라" 조언

타인 감수성과 꼰대

이런 공감대 속에는 어른다움이 있다. 젊은 세대가 '꼰대'에 저항하는 이유를 그는 어른의 이해와 변화가 없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의 기준으로 '타인 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썼다. '미투 현상'이 사회를 뒤흔들 때 익숙해진 '성인지 감수성'에서 온 말이다. 이제 세상은 내 입장만 고집하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주변에선 '타인 감수성'이란 표현을 쓰기도 한다니까, 시인은 더 좋은 표현이라며 그 말을 되뇌었다.

"세상은 나 하나와 나머지의 너로 나뉘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나를 빼면 모두 '너'이기 때문에, 너를 감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 때만 얘기하려 들고, 네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때는 그렇구나, 그거 참 힘들겠다 하고 관심 갖고 보살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는 책 속에서도 꼰대를 상징하는 신조어 '라떼'를 지적했다. 어른과 젊은이 쌍방이 조금씩 물러서서 상대를 이해하기를 기대했다. 어른 쪽에서 권위를 내세우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도 변화할 것이라고 믿었다.

소위 '인기 작가' 반열에 오른 만큼 다양한 약속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지만, 가장 즐거운 일정이 있다. 젊은 세대와 만나는 강연회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다.

"아이들을 만나서 어려운 점, 괴로운 점, 그늘진 점을 봐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 청춘들도 소통을 해보면 문제가 있어요. 결혼이 싫은 여성, 학교가 힘든 선생님, 취업이 힘든 청년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려 노력하고 있죠.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고, 기다려주고, 도움 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낳아주고 길러주는 것만으로 부모 노릇이 끝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져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어른이 됐다는 건 졌다는 것이니까요."

젊은 세대가 갖는 아픔에도 주목했다. 학자금 대출 등으로 '젊은 빚쟁이'가 되고, 구직난에 직장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지만, 망가진 경력은 쉽게 되돌릴 수 없어 '손닿는 직장'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고충에 대해서다. 그는 "가서 막일이라도 해라"가 어른 눈에는 맞는 말 같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의 심정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두 비워내야 좋은 어른

최근에는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고민하는 어른이 많아졌다. 인문학 강좌의 주제로도 인기가 많다. 세대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스스로를 고민하는 기성세대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나태주 시인은 이러한 모습을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은 스스로를 채워야 하는 기간이에요. 이기적인 삶이 되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요. 돈도 명예도 지위도 얻으려면 채우는 데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달라요.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를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상 타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아닌 내 내면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철이 드는 과정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젊을 때 스스로를 꽉 채워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을 통정성에 빗대 이야기했다. 살아온 삶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면 스스로의 잘못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그 대목은 참 미안하게 됐다. 어쩔 수 없었고, 지금 같으면 안 할 텐데 그때는 내가 그랬다' 고요. 어른이라면 자신을 속이거나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고, 자기 잘못까지 인정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해요. 우리 사회나 국가 운영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젊을 때 맘껏 채우고 나면 이후에는 비우는 과정이 찾아온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비우고 갈 것인지. 때려 부숴서 비우고 갈까, 곱게 정리해서 도움이 되게 할까 말이죠. 지금 운영하는 풀꽃문학관도 나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간 모아놓은 것들을 쓰레기가 아닌 보물이 되도록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욕심내 집에 데려가는 순간 쓰레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잘 비우고 간 인물 중 하나로 나태주 시인은 이어령 선생을 꼽았다. 청년 시절 누구보다 채우기에 열중했고, 말년에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놓은 '선비' 같았다고 평가했다.

"옛날 교사 시절, 태풍이 휩쓸고 간 운동장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모아다가 태운 적이 있어요. 아직 푸르름이 남아 있는. 그 잎들을 태우면 아주 역겨워요. 아직 살아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그런 것 같아요. 그에 반해 가을이 되어 탈색되고 말라 떨어진 낙엽들을 태우면 냄새가 고숩고, 가볍게 훨훨 타요. 모두 비워냈기 때문이고, 사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고민이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은 가야 할 길이 멀어 고민이지만, 중년이 넘으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이 급해진다. 나태주 시인은 청년과 중년 혹은 노년은 접근이 달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10년짜리 계획이 필요하지만, 중년은 5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 5년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청년은 차근차근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갖고 준비해야 하고, 중년은 꼭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는 일만 하려다가는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입어요. 좋아하는 일은 노력하면 잘할 수 있지만 잘하는 일이 좋아지긴 어렵죠. 길게 보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야 해요. 그래야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반대예요. 잘하는 일을 선택해야 남은 인생 동안 성공을 맛볼 수 있을 테니까요."

책 내놓을수록 젊은층 소구력 발휘
BTS 노랫말 모티브로 한 시 출간도
'이생망', 슬픈말… 말의 힘 무시 못해

늘 말과 글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는 그는 요즘 말에도 관심이 많다. 신조어와 노래 가사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BTS의 노랫말을 모티브로 한 노래산문집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야기 나누는 동안 요즘 말이 툭툭 튀어나왔다. 젊은 엄마들이 쓰는 '육퇴'(육아퇴근)가 그랬고, '독박육아'나 '라떼'(꼰대를 상징하는 말)가 그랬다. 그는 '이생망'을 지목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 돌이킬 수 없다'는 뜻으로, 젊은이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줄임말이다.

"요즘 말 중에 가장 마음 아픈 말이에요. 절망적이죠.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인생이 망했으면 다음 인생도 망한 인생이 돼요. 좀 부족해도 모든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고, 포기할 수 없어요. 모두 성과에 급급하니 나오는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줘요."

그는 젊은 세대에 대한 당부를 이어갔다. 많은 장소에서 만난 힘들고 지친 청년들이 잊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너무 큰 꿈에 매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커진 꿈을 원해요. 마치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악마와 계약을 맺듯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바치려고 하죠. 하지만 집채만 한 큰 것을 바라다가 안 되면 부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그것을 성취하는 아름다움을 느껴보길 권하고 싶어요."

글/ 이준호 기자 jhlee@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 "세상은 나 하나와 나머지의 너로 나뉘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나를 빼면 모두 '너'이기 때문에, 너를 감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 때만 얘기하려 들고, 네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네 때는 그렇구나, 그거 참 힘들겠다 하고 관심 갖고 보살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③ 최적화 기술 1위 → 20,684,160 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주)뱅골프코리아 | 문의전화 :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golf.co.kr Made in Japan, Fitting in Korea

“경제지 정체성 지키며 전문 섹션으로 경쟁력 높이길”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위원 7명 위촉 첫 정례회의
2개월 간격 올해 5회 개최
“경제 메가트렌드 심층분석
ESG·RE100 이슈 관심도”

김덕헌(왼쪽 두 번째) 이투데이 대표이사가 4일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 사옥에서 열린 3기 독자편집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래 인물 사진 왼쪽부터 독자편집위원에 위촉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위원장), 전하진 SDX재단 이사장, 이규홍 사학연금운용단장, 박홍기 성균관대 교수,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박종민 한국언론학회 회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가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투데이 사옥 회의실에서 올해 첫 정례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3기 독자편집위원으로 △추문갑 위원장(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원종원 위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규홍 위원(사학연금운용단장)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7명이 위촉됐다.

본지는 이날 새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매체의 발전을 위해 솔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추문갑 위원장 전하진·이규홍·장윤미·박종민·박홍기 위원 등 6명과 김덕헌 대표이사, 박성호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선출된 추문갑 위원장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알리·테무·쉬인 등 플랫폼의 성장 등 경제 이슈를 이투데이가 선도하고 있다”며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부분은 냉철히 비판해 최고의 경제신문이 되도록 돕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하진 부위원장은 “인식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명확히 인식하는 인재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인재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사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량 저감 등 환경 이슈를 외면할 수 없는 시기다. 이투데이도 ESG와 RE100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종민 위원은 “전통적인 경제지로서의 모습을 갖춘 이투데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매체와의 차별점을 확보하면 좋겠다”라며 “경제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미래IT, 한류 문화, 헬스케어 등 기자들의 전문성 돋보이는 섹션을 개발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장윤미 위원은 “필진 구성이 독자들의 매체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독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전문성 있는 기자들을 육성해 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면 더욱 접근성이 높은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홍 위원은 관점의 확장을 당부했다. 이 위원은 “투자의 큰 흐름이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했기 때문에 모든 기사에 글로벌 시각을 투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양자컴퓨팅, 핵융합기술, 기후테크 등 경제계의 ‘메가트렌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기획 연재기사를 시도하면 눈에 띄는 경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홍기 위원은 “공식적인 브리핑과 배포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담은 기획 기사가 필요하다”라며 현장 취재를 독려했다. 이어 “인포그래픽에 들어가는 이미지 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제작한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독자들 모두가 신뢰하고 선호하는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지난해까지 각각 운영해 왔던 독자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올해부터 독자편집위원회로 통합해 더욱 종합적인 비평을 청취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올해 총 5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개월 주기로 이투데이 보도에 대한 비평과 개선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한성주 기자 hsj@

노태문 “본질·혁신·조화가 삼성전자 디자인 지향점”

〈삼성전자 대표 겸 디자인경영센터장〉

16일 개막 밀라노 디자인위크에
몰입형 전시 ‘공존의 미래’ 개최

노태문〈사진〉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디자인경영센터장(사장)은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4’ 기간 열리는 삼성 디자인 전시에 앞서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디자인 아이덴티티 5.0인 본질·혁신·조화는 2030년을 향한 삼성전자 디자인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노 센터장은 “제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디자인’은 혁신 기술을 더욱 빛나게 하고, ‘기술’은 꿈꾸던 디자인을 현실로 만들어낸다”며 “디자인과 기술이 서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시너지를 낼 때 비로소 고객의 삶에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제품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질을 추구하는 디자인’은 제품 본연의 기능과 쓰임에 집중하는 디자인”이라며 “불필요한 수식과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제품 본질에 가장 편안하게 맞아떨어지는 정제된 디자인은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얇고 균일한 베젤(테두리)로 모바일 제품 본연의 기능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갤럭시 S24 시리즈,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피니티 에어 디자인으로 시청 경험과 사용성을 높인 TV,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일체형 세탁건조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단순한 새로움이 아닌, 고객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목적이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자 한다”고도 말했다.

노 센터장은 이어 “혁신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는 삼성전자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라며 “이렇게 탄생한 삼성전자 제품이 고객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길 늘 꿈꾼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16일(현지시간)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4’에서 삼성전자의 디자인 지향점을 선보이는 몰입형 전시 ‘공존의 미래’를 연다.

송영록 기자 syr@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주관과 의식이 단단한 청년 돼 달라”

취업준비 청년 초청 간담회

“단단한 주관과 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향해 오롯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진옥동〈사진〉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열린 ‘청년은행원 간담회’에서 ”취업준비 청년들의 여러 애로사항들을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신한금융재단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30명의 취업준비 청년들을 초청해 진행했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희망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진 이사장은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소감과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취업지원 방안 모색 및 조언을 전달했다. 이어 이소영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를 연사로 초청해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과 조직문화를 주제로 취업 특강을 진행했다.

김범근 기자 nova@·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김성태 기업은행장 “벤처스타트업 금융 사각지대 해소할 것”

IBK벤처투자 출범식

김성태〈사진〉 IBK기업은행장은 4일 “IBK는 시장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벤처스타트업의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행장은 이날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IBK벤처투자 출범식 및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혁신상 수상기업 데모데이’의 개회사를 통해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며 시장기능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IBK벤처투자를 설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IBK벤처투자는 지난해 4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혁신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1000억 원으로 설립됐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사진제공 IBK기업은행

서울상의, 서울경제위원장에 권오성 비바스포츠 대표 선임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경제위원회 제7대 위원장으로 권오성〈사진〉 비바스포츠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신임 위원장은 2021년부터 양천구상공회 회장으로 서울경제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임기는 2년이다.

2003년 출범한 서울경제위원회는 서울지역 25개 구 상공회 회장들로 구성되며 서울 소재 중소상공인의 권익 향상과 경영 애로 해소 및 정책 건의 등의 경영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이노션, 안전경영 역량 입증
안전보건인증 잇달아 획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에서 이용우(왼쪽) 이노션 대표이사와 근로자 대표 임다운 시니어매니저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이노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이노션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인증을 받으며 안전 사업장 역량을 입증했다.

이노션은 국내 광고업계 최초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 국제표준 ‘ISO45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O에서 제정한 ISO45001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요구조건과 국제표준을 반영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KOSHA-MS는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사업장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이민재 기자 2mj@

부음

▲박순향 씨 별세, 김대흥 씨 부인상, 김만철·효선(여성신문사 대표이사)·홍철(KBS PD) 씨 모친상, 변형균(시스트라코리아 부사장) 씨 장모상, 송주란·강한경 씨 시모상 = 3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5일 낮 12시 30분, 02-2258-5922

▲황석원 씨 별세, 황경수·학수·해수(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혜경 씨 부친상, 이구호 씨 장인상, 허혜경·이혜정·엄원경 씨 시부상 = 4일,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30분, 033-254-5611

▲심순이 씨 별세, 이영복(약사)·태복(주식회사 이원 대표이사)·홍복(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장) 씨 모친상, 심명숙·박향이·이명주 씨 시모상 = 3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6일 오전, 031-787-1500

문화의 窓

이승하
시인·중앙대 교수

살가워진 일본, 데면데면한 중국

모 대학 일문학과 교수 왈, 해가 갈수록 중문학과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지만 일문학과의 인기는 상승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여행객 수가 급감한 반면 일본으로 가는 여행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항공사 직원에게 직접 들었다. 우리나라 외교정책도 중국과는 데면데면해졌고 일본과는 아주 친밀해졌음을 요 몇 년 동안 계속 느끼고 있다.

작년 일이다. 학부 종강 무렵, 이번 방학 때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지,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절반인 십여 명 학생이 손을 들었다. 손 든 학생들에게 어느 나라에 갈 예정인지 일일이 물어보았다.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가 1명씩 있었는데 다 친척댁 방문을 한다고 했지 순수 여행은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이 넘는 학생이 일본에 이번 방학 때 가볼 예정이라고 했다. 중국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동남아가 2명 있었다.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친밀감과 중국에 대한 거리감이 확연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학생 중 방학 때 중국 여행을 하고 오거나 중국의 대학에 가서 교환학생으로 학점을 받아오는 경우를 지금껏 보지 못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도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 온 나라다. 우리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은 물리쳤지만 원나라의 침략은 물리치지 못했다. 나당연합군의 고구려와 백제 멸망, 임진왜란 때 명의 원군,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의 굴욕, 이 땅에서 일어난 청일전쟁, 상하이 임시정부가 충칭까지 쫓겨간 고난의 세월, 한국전쟁 때의 중공군 인해전술, 동북 3성에 살던 조선족의 한국 진출, 수만 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 수, 서울과 부산의 중국인 관광객 수, 제주도에 몰려드는 중국 자본….

중국과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은원(恩怨)의 관계였다. 거대한 공룡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우리는 앞으로 더더욱 실리를 취해야 할 텐데, 정부의 대응책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한자문화와 불교문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섬나라 일본과 중국 대륙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나마 국토의 5분의 3은 북한 땅이다.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동안 중국에 예속되지 않고 국호를 유지한 것은 가히 기적적인 일이었는데 우리 특유의 외교술 덕분이었다. 동지사를 파견해 조공을 바쳤다고 하지만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었다. 사대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실리외교였다.

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고 되어 있다. 자신을 지키려면 상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가 중국을 바로 알 때,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남한 면적의 100배가 되는 나라요 인구가 15억이 넘어,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국가다. 중국이 우리의 자랑거리인 반도체 기술과 가전제품 생산 기술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반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우리 시장을 거의 덮어버렸다. 이런 때이니 우리는 더욱더 영리해져야 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우리는 형식적인 항의만 하고 있다. 일본의 외교백서를 보면 죽도(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대목이 나온다. 해방 이후 민간에 떠돈 노래의 가사,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에 속지 마라, 일본놈 일어나고 되놈(중국) 되(다시) 나온다'가 생각난다.

지구본을 보면 손톱 같은 우리나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돕겠다고 천명한 이상 우리도 새로운 외교 전략을 폈으면 좋겠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그레고리 펙 명언

"믿음은 당신에게 내면의 힘을 주고 균형감을 주고 삶의 관점을 제공한다."

할리우드 영화배우다. 부모가 이혼해 어려서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는 극단에 들어가 브로드웨이에서 먼저 데뷔했다. 할리우드에 진출한 그는 '왕국의 열쇠'로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되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나바론'이 크게 성공한 뒤에 '앵무새 죽이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받아 영화 인생의 절정에 올랐다. 오드리 헵번의 데뷔작인 '로마의 휴일'에서 협연한 그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16~2003.

☆ 고사성어 / 의인막용 용인물의(疑人莫用 用人勿疑)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믿고 썼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명심보감(明心寶鑑) 성심편(省心篇) 상에 나온다. 중요한 임무를 맡길 사람을 쓰려면 여러 사람을 신중히 살펴 뽑아야 하고 일단 일을 맡긴 뒤에는 그 사람을 믿어주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등용과 용인의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삼성그룹 창업주 호암(湖巖) 이병철(李秉喆) 회장의 경영철학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의심이 가거든 사람을 고용 말라. 의심하면서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일단 채용했으면 대담하게 일을 맡겨라'라고 자서전에 썼다.

☆ 시사상식 / 리추얼 라이프(ritual life)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습관이나 의례적인 행위를 말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하거나, 하루에 한 시간씩 책을 읽는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하는 것 등이 리추얼 라이프의 대표적인 사례다. 리추얼 라이프는 해시태그 #리추얼라이프, #갓생 등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며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슈&인물 외국인정책 '선행국 경험' 조언한 최 훈 前싱가포르 대사

"이민정책 관건은 사회통합이죠"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싱가포르 내각의 장관 한 명과 민족적 동질성이 매우 강한 한중일 동아시아 3개국의 인구 위기 및 이민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이민정책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8만1921명(단기체류외국인 제외·법무부)이다. 전체 인구 대비 3.7%다. 단기체류외국인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4.89%로 5%에 육박한다. 초저출산(합계출산율 0.72명)·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화두로 떠올랐다. 동시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국가 중 싱가포르가 조명을 받고 있다.

싱가포르 현지의 실물경제·정책을 접했던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는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해선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1970년대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97명을 기록했다. 1997년(1.82명)에 1명대로 떨어진 이후 26년 만에 0명대로 낮아진 것이다. '외국인 이민정책=출산율 제고'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제19대 싱가포르 대사를 지낸 최 전 대사를 만났다. 그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저출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점에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민정책이 정착된 싱가포르의 문화와 정책를 경험한 '관찰자'로서 이민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민정책=출산율 제고' 검증 안돼
공론화 통해 사회적합의 끌어내고
촘촘한 설계·엄정한 법집행 있어야

◇싱가포르, 다인종·다민족 오랜 경험 속 사회통합·조화 중시= 최 전 대사는 싱가포르가 외국인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통합과 조화를 중시하는 점을 주목했다. 최 전 대사는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 인종 구성이 다양한 나라지만 외국인 정책은 엄격하다"며 "촘촘하게 설계된 고용허가 및 비자 제도를 통해 필요한 업종과 유입 가능한 나라들이 미리 지정돼 있고,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가 입국부터 고용 관계 종료 후 귀국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인종, 다민족 사회로서 오랜 경험이 있음에도 그런 환경 속에서 사회통합과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기에 계획적이고 세심한 접근 방법을 취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보험 의무 가입 등 여러 책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전했다. 최 전 대사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려면 고용주는 채용 전에 보증금 5000싱가포르달러(약 500만원)를 납부한 뒤 정부의 동의를 얻어 채용할 수 있다"며 "가사도우미가 입국한 뒤 국내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일종의 금전 보증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근로주소지를 이탈한 경우에 보증금은 당연히 몰수되고 다시는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수 없다"며 제도의 엄격함도 부연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논하고 있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은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외국인 제도를 싱가포르 현지인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대사는 "자칫 복잡해 보이고 고용주에게 너무 엄격하게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별 고용주(가정)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쓰는 것이니만큼 그에 상응한 부담을 지우는 게 합리적이고 공평하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고 현지인들도 이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심한 설계·엄정한 법 집행 필요…'출산율 직결' 단편적 접근 안 돼= 최 전 대사는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던 배경으로 정부의 세심한 정책과 엄정한 법 집행을 꼽았다.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불법체류, 정착과 이민 등 잠재적인 사회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 점이 놀랍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최 전 대사는 외국인 이민정책이 출산율 제고로 직결될 것이란 단편적인 접근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전 대사는 "출산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와 교육 수준, 경제 사회 구조 등 워낙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정책을 도입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으로 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싱가포르 청년층은 원하면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자가 주택을 살 수 있고, 고용과 소득흐름도 안정적이고 은퇴에 대비한 저축도 잘 돼 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서구적 직장 문화에서 일하기 때문에 삶과 일의 균형도 잡혀 있어 보이지만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 좇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 새겨야= 최 전 대사는 외국인 정책을 논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당부했다. 한번 만든 정책은 되돌리기 힘든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을 충실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 전 대사는 "우리 사회도 외국인 비중이 5%에 다다르고 있어 다문화 국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며 "많은 저임금 업종의 노동력 부족과 장래 인구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정책과 이민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론화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 내각의 한 장관이 전했던 당부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효율만 놓고 문제를 풀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외국인 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면서 다원화된 사회, 다문화적인 사회의 이질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구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돼 있다. 주된 이유는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운동원들이 집집마다 혹은 사무실마다 찾아가게 되면 사람들 사생활 또는 업무에 받는 지장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 중 하나이지만 사생활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해당 기업과 무관한 사람이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온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도가 그것이다. '비종사 조합원'이란 특정 사업장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지칭한다.

이 법에 의하면 그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노동조합원도 회사 내에 들어와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주로 해당 기업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예컨대 OO노총) 간부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한다.

상급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
법규정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
노조법 개정통해 기준 명확히해야

문제는 조합원 자격이나 해당 기업과의 관련성에 대해 법조문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데 있다. 법조문대로라면 아무 노조든 조합원이기만 하면 임의의 사업장에 출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에 들어와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은 이게 사실이라는 걸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생산 현장에선 이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기업 현장에서는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 요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당 기업과 관련이 없는 노동조합인데도 하청 근로자와 관계가 있다는 사유로 출입을 요구하여 조합 활동을 한다. 노조 가입 신청을 받기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마저 있다.

법조문에 버젓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무작정 금지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출입을 허용하면 들어와서 확성기를 켜고 천막을 설치하고 노동가요를 틀고 현수막을 붙인다. 그렇다고 출입을 금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을 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처음에 이 법이 적용된 건 형사 사건이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법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노동조합(상급단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고소·고발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 당시 원래 정부안에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해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빠지게 됐다. 이렇게 사업장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당연한 제한이 법조문에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현장에서는 쉽사리 대처하기 어려운 갈등의 소지가 생겨버렸다.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무엇이든지 할 수는 없다. 다양한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조화로운 해결이 중요하다. 선거운동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도 아무 활동이나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경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 해결을 당사자에게만 맡겨 놓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 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10일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당도한 것이다.

선거 바람은 언제나 거칠고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할 정도로 막말, 파렴치, 편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례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이대생 미군 성상납' 등의 공개 발언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 당선돼 정치를 한다면 망언밖에 더 하겠나"라고 개탄했다. 위안부 단체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비근한 사례가 곳곳에 널려 있다.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막말 파장도 범상히 넘길 수준이 아니다. 일찍이 "2찍" "셰셰"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여성 비하도 불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를 겨냥해 '나베'(냄비)란 별명으로 불린다고 한 것이다. 나베는 매춘부를 빗대는 성적 비하 표현이다. 직전 대통령선거에 집권당 후보로 출마했던 정치 지도자가 쓸 말과 쓰지 못할 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 터져 나오는 물의도 만만치 않다. 두루 한심하고 씁쓸하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참담한 결과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할 길이 없다.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막말이 이기고 파렴치가 보상받는 디스토피아가 전개되기 마련이다. 유권자가 막아야 한다. 경제 활력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 젊은이들의 꿈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적어도 저질 정치만은 추방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민은 22대 국회에 민생·저출산·경제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만2000명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6%가 민생을 선택했다. 다들 삶이 나아지길 고대하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현실도 걱정이다. 삼성전자의 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가 2022년 1위에서 지난해 3위로 떨어졌다. 우연이 아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천문학적 보조금도 아낌없이 지원한다. 한국은 보조금은커녕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조차도 쉽지 않다. 첨단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이란 기초적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입법 권력을 쥐고 발목을 잡으니 '나홀로' 역주행이 빚어지고 날개 없는 추락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다. 시장 친화적인 입법부 구성이 급선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국정철학을 내밀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단호히 선택해야 한다. 막말, 파렴치 사례를 솎아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권자가 자기 책무를 소홀히 하면 플라톤 경고대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 혹은 집단이 입법 권력과 민생을 쥐고 흔들지도 모른다. 배는 산으로 가게 된다. 마침내, 선택의 시간이 왔다.

'기업 밸류업' 당근이 필요해

노트북 너머

윤혜원
자본시장부 기자

세상은 이론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경험도 사고와 판단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이론이 합리적이고 그럴싸해도 직접 겪어본 적이 없으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이론대로 실행해 이에 맞는 결과를 얻은 누군가의 사례가 있다고 해도 '만에 하나'라는 의구심이 남을 수도 있다.

최근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영역을 향한 미심쩍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다.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증시를 부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를 두고 시장 주체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는 한국 자본시장이 장기간 우상향을 지속한 경험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최근 10년간 코스피는 약 30%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 S&P는 180%, 일본 닛케이는 170% 넘게 뛰었다. 상승장도 테마가 종목만 바꿔가며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는 평가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마련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저주가 순자산비율(PBR) 테마주 열풍 생성이라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후 외국인은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덩치가 큰 종목들을 쓸어 담았다. 벤치마킹 대상인 일본이 증시부양에 성공하며 한국도 비슷한 경로로 갈 수 있다고 관측한 셈이다.

반면 국내 기업이나 개인투자자는 가보지 못한 길에 발을 딛는 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미들은 최근 한 달간 저PBR주를 6조 원어치 팔고 해외 증시 투자 규모를 늘렸다. 기업으로서는 배당에 부과되는 세금이 부담스러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뛰어들 유인을 못 느끼는 상황이다.

저평가주에 관심 가져온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동종업계 '사장님'들을 만나러 다니기에 바쁘다고 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와 만난 조직 수장들은 입을 모아 "밸류업, 진짜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업계 흐름에 밝은 위치에 있는 사람마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이 선뜻 안 따라주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주저하는 기업과 투자자를 움직이려면 정부가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겠지만, 당장은 인센티브에 힘을 줄 때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를 가를 수 있어서다. 올해 2월 발표된 프로그램 초안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지 못했다. 최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코스피 상장 대표기업들은 기업과 투자자가 체감할 세제 혜택을 주문했다. 5월로 예정된 최종안 발표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hwyoon@

글로벌 시민

'평화도시'로 거듭난 게르니카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대표작으로 많은 사람들은 '게르니카'를 손꼽는다.

게르니카는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게르니카로 가는 길은 주변에 산을 낀 왕복 2차로였는데 나란히 이어지는 철길, 조그만 기차역들과 들판, 집들이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이런 마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스페인 내전의 승기를 잡고자 했던 반정부 민족주의 세력의 수장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스페인 북부를 장악하기 위해 동맹국인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에 '바스크인들의 구심점' 게르니카를 폭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37년 4월 26일 독일과 이탈리아 공군은 폭격기와 전투기 50여 대를 동원해 40톤의 폭탄을 인구 7000여 명의 작은 도시에 쏟아부었다.

때마침 장날이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 모여들어 북적이던 게르니카 시내 중심부는 한순간 아비규환의 불바다가 됐다. 3시간 반 동안 수차례 이뤄진 폭격으로 300명 가까운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수많은 부상자가 나왔고 전체 건물의 85%가 완전히 파괴됐다.

'게르니카 평화박물관' 앞마당에는 공습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거대한 사진들로 만날 수 있다. 또 실내에는 폭격과 화염에 무너져 내린 건물의 잔해를 강화유리 바닥 아래에 재현해 놨다. 이곳에선 당시의 정세를 알 수 있는 시각물, 거대한 폭탄, 폭격 이후의 사진,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평화박물관 위쪽으로 몇 블록 가면 법원이 있고 그 옆에 피카소의 그림 '게르니카'를 복제한 벽화<사진>가 있는데 관광객들의 인증사진 명소가 됐다.

1937년에 제작된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독재자 프랑코가 죽을 때까지 스페인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장의 뜻에 따라 1981년에서야 스페인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현재는 마드리드의 '소피아여왕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게르니카(스페인)=장영환 통신원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 편집·인쇄인 김덕헌 | 주필 이승현 |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세상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